통일신보

무소속대변지 제13호 【루계 제2534호】

주체108(2019)년 3월 23일 토요일
음력 2월 17일

절세위인의 향도따라 삼천리
강토우에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자!

김정일각하는 자주시대의 위대한 령도자, 세계정치의 거장이시다

2월의 하늘가에 높이 울려퍼진 위인칭송의 목소리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의 승리적전진과 완성을 위한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인류의 다함없는 흠모의 정이 광명성절을 계기로 더욱 뜨겁게 분출되였다.

걸출한 사상리론가, 불세출의 선군령장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탄생 77돐을 성대히 맞이하려는 진보적인민들의 한결같은 마음에 떠받들려 세계적판도에서 경축준비위원회 결성식들이 련이어 진행되였다.

정계, 사회계의 저명한 인사들을 위원장으로 하는 전국적, 지역적규모의 준비위원회들이 파키스탄, 네팔, 로씨야, 쓰르비아, 로므니아, 메히꼬, 베네수엘라에서 조직되였다.

이란, 인도네시아, 끼르기즈스딴, 체스꼬, 도이췰란드, 마쟈르, 에스빠냐, 브라질에서는 당지도부 성원들을 책임자로 하는 준비위원회들이 결성되고 캄보쟈에서는 국왕의 위임에 따라 왕궁담당부수상이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였다.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지역주체사상과 선군정치연구협회 국제련합은 총서기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제준비위원회를 내왔다.

기네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전국위원회 위원장은 광명성절을 조선인민과 함께 경축하는것은 자기들의 응당한 본분이라고 하면서 자주와 정의를 위해 투쟁하는 진보적인민들에게 사상정신적무기를 안겨주시고 선군의 보검으로 조선의 사회주의를 수호하신 김정일각하의 혁명생애를 널리 소개선전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세계 이르는 곳마다에서 결성된 준비위원회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고귀한 업적을 칭송하는 다채로운 정치문화행사들을 적극 벌려나갔다.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스위스단체들이 공동성명을, 인도네시아선봉자당 중앙지도리사회 총서기, 민족사회주의당(로므니아) 최고리사회 위원장, 조선과의 친선협회 그리스지부 공식대표, 조선인민과의 련대성 및 조선통일지지 아랍위원회 위원장이 담화와 글을 발표하였다.

성명, 담화, 글들은 김정일각하의 탄생은 조선혁명에서 력사적의의를 가지는 커다란 사변이였다, 그이께서는 조선사회의 일심단결을 강화하시고 튼튼한 자위적국방력을 다지시여 공화국의 무궁번영을 위한 굳건한 토대를 마련하시였으며 반제자주위업수행에서 귀중한 본보기를 창조하시였다고 격찬하였다.

절세위인의 탄생일을 축하하여 캄보쟈국왕과 대왕후, 인도네시아투쟁민주당 중앙지도리사회 총위원장이 해당나라 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들에 꽃바구니들을 보내여왔으며 여러 나라 정당대표단과 각계 인사들이 우리 대표부들을 방문하였다.

한편 인디아, 메히꼬에서는 《민족의 자주권과 세계의 평화》, 《세계의 자주화와 평화를 위한 투쟁》에 관한 주체사상전국토론회들이, 베네수엘라에서는 중앙집회가, 스웨리예에서는 북유럽 진보정당 및 친선단체들의 련합경축모임이 진행되였다.

김정일화전시회, 김일성화온실참관식, 도서, 사진 및 수공예품전람회, 인터네트전람회, 도서기증식들을 비롯하여 다양한 정치문화행사들이 수많은 나라에서 의의있게 조직되였다.

행사장들에서는 주체, 선군의 기치높이 나라와 민족의 무궁번영을 위한 억년기틀을 마련해주시고 인류자주위업실현에 불멸의 공적을 이룩하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칭송의 목소리가 끝없이 울려나왔다.

네팔공산당(맑스-레닌주의) 중앙위원회 총비서, 끼르기즈스딴 《끼르기즈엘》인민통일공화국정당 중앙리사회 위원장, 백두산체스꼬조선친선협회 부위원장은 김정일각하께서는 김일성주석께서 개척하신 조선혁명을 승리에로 이끄시였다, 그이의 업적이 위대하기에 조선인민은 해마다 광명성절을 뜻깊게 경축하고있다, 조선이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존엄떨치고있는것은 조선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신 김정일각하의 업적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로씨야평화 및 통일당 부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김정일동지는 혁명령도의 전기간 인민들로부터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으신분이시다.

그이의 천재적인 사상리론활동은 불패의 사회주의보루인 조선의 강화발전을 위한 담보로 되였다.

김정일동지의 뛰여난 예지와 국가정치활동가로서의 특출한 령도실력은 선군정치를 통해 뚜렷이 립증되였다.

무한한 헌신성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 위대하면서도 겸허하신 풍모, 숭고한 애국주의를 지니신 김정일동지의 위인상은 우리모두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되여있다.

스위스조선위원회 위원장은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정력적인 대외활동으로 조선의 국제적권위를 비상히 강화하시였다, 새 세기에 들어와 조선을 적대시하던 나라들이 외교관계를 맺고 관계정상화에 나선것도 그이의 탁월한 외교지략과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가 있었기때문이다, 하기에 수많은 나라의 저명한 인사들은 김정일각하를 세계정치의 거장, 자주시대의 위대한 령도자로 높이 칭송하고있다고 말하였다.

2월 16일을 전후로 하여 각국의 출판보도물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성스러운 생애와 업적을 광범히 소개선전하였다.

《주체사상에 대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자》,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 당의 위업은 필승불패이다》를 비롯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고전적로작들을 로씨야,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슈, 도이췰란드, 민주꽁고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여러 나라의 출판보도물도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상과 사진문헌, 경애하는 원수님의 혁명활동사진문헌들을 모시고 절세위인들의 불후의 저서들을 전문 또는 요지로 보도하였다.

인디아신문 《인디안 앤드 월드 이벤트》, 이란신문 《이란 뉴스》, 수리아중앙TV방송, 벌가리아신문 《이스크라》, 남아프리카신문 《라우디움 싼》, 기네신문 《호로야》를 비롯한 각국 언론들이 《김정일, 그이의 탄생과 세계》, 《인민의 령도자 김정일》 등의 제목들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을 자주시대의 지도사상으로 발전풍부화하시고 조선로동당을 인민의 운명을 책임진 향도적력량으로, 조선인민군을 불패의 혁명강군으로 강화발전시키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에 대해 상세히 전하였다.

또한 김정일령도자의 한평생은 조국과 인민의 찬란한 미래를 위하여 자신을 깡그리 불태우신 숭고한 생애이다,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지켜 고생도 락으로 여기시며 낮과 밤을 이어가신 위인의 헌신적생애가 있어 조선인민의 오늘의 행복이 펼쳐질수 있었다, 김정일령도자의 자애로운 영상은 조선인민뿐아니라 세계 진보적인류의 마음속에 영원히 간직될것이다고 강조하였다.

실로 2월의 하늘가에 높이 울려퍼진 위인경모의 목소리는 위대한 장군님이시야말로 만민이 우러러 칭송하는 자주시대의 영원한 태양이심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본사기자

태양절경축준비위원회

여러 나라에서 결성

김일성주석 탄생 107돐경축 스위스준비위원회 결성식이 7일 바젤에서 진행되였다.

스위스의 여러 단체 인사들과 성원들이 참가한 결성식에서는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백두산위인칭송국제축전 스위스조직위원회 위원장이며 스위스조선위원회 위원장인 스위스주체사상연구소조 책임자 마르틴 뢰체르가 선출되였다.

결성식에서는 성명이 발표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태양절은 조선인민에게 있어서 가장 경사스러운 명절이다.

김일성주석은 조선민족이 낳은 위대한 영웅이시며 불굴의 의지를 지니신 강철의 령장, 탁월한 군사전략가이시다.

그이께서는 한평생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인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시였다.

또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사회주의건설과 조국통일, 세계자주화위업실현을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끄시였다.

김일성주석의 사상과 위업은 김정일각하에 의해 빛나게 계승되였으며 오늘은 김정은최고령도자에 의하여 드팀없이 이어지고있다.

결성식에서는 3월 11일부터 4월 16일까지의 기간에 다양한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할데 대한 준비위원회의 활동계획이 토의결정되였다.

* *

위대한 김일성주석 탄생일경축 준비위원회 결성식이 10일 로씨야 모스크바주체사상연구소조에서 진행되였다.

결성식에서는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소조책임자 미하일 위꿀린 미하일로비치가 선출되였다.

소조책임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일찌기 어리신 나이에 일제를 반대하는 혁명투쟁의 길에 나서시여 나라를 해방하시였으며 3년간의 조국해방전쟁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신데 대해 언급하고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사회주의조선의 탄생은 세계 진보적인민들에게 커다란 힘과 용기를 안겨주었다.

김일성동지는 조국과 혁명,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한평생을 다 바치신 조선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시다.

진보적인류는 그이를 불굴의 혁명가로 높이 칭송하고있다.

결성식에서는 태양절에 즈음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연구토론회를 비롯한 다양한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할데 대한 준비위원회 활동계획이 토의되였다.

* *

태양절경축준비위원회가 영국선군정치연구협회, 영국주체사상연구소조, 영국조선친선협회의 공동명의로 8일 런던에서 결성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영국선군정치연구협회 위원장 더모트 하드슨이 선출되였다.

준비위원회는 3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를 경축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다양한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 *

위대한 김일성주석탄생 107돐경축 수리아준비위원회가 9일에 결성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수리아아랍조선친선협회 위원장 무함마드 샤으반 아주즈가 선출되였다.

준비위원회는 3월 9일부터 4월 16일까지를 경축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다양한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 *

태양절경축 이란이슬람교련합당준비위원회가 11일에 결성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부총비서 모함마드 허쎄인 닉크남이 선출되였다.

준비위원회는 3월 11일부터 4월 16일까지를 경축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불멸의 혁명생애와 업적을 칭송하는 다양한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한 성과들을 널리 소개선전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 벌려나가기로 하였다.

* *

태양절경축 체스꼬준비위원회가 12일 쁘라하에서 결성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체스꼬슬로벤스꼬공산당 중앙위원회 부총비서이며 체스꼬주체사상연구 및 구현소조 위원장인 백두산체스꼬조선친선협회 위원장 요제프 쎄르비스따가 선출되였다.

준비위원회는 뜻깊은 태양절에 즈음하여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생애와 업적,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위인상을 높이 칭송하는 토론회, 영화감상회를 비롯한 다양한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본사기자

조국소식

황해북도에서 나무심기 진행

황해북도에서 산림복구전투 2단계 과업을 힘있게 추진하고있다.

도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올해 봄철나무심기가 시작된 때로부터 열흘남짓한 기간에 1 600만여그루의 나무를 심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토산군에서 산림복구전투를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전환시켜 시작부터 실적을 올리였다.

린산군, 은파군에서는 실하게 키워낸 창성이깔나무, 밤나무, 참대버드나무를 비롯한 30여종에 수백만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사리원, 송림시의 근로자들이 구뎅이파기, 부식토깔기, 흙다짐 등 공정별작업을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하고 뿌리보호제를 리용하여 사름률을 최대한 높이고있다.

나무모생산의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에 힘을 넣어 모들을 충분히 확보한 평산군, 중화군에서는 단위별로 과제를 정확히 주고 나무심기사업을 군중적운동으로 힘있게 전개하여 일별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

삼지연군에서 건설기공구전시회 진행

중앙과 지방의 청년동맹일군들과 216사단 백두산영웅청년려단, 각 도청년돌격대들에서 준비한 건설기공구전시회가 21일 삼지연군에서 진행되였다.

전시회장에는 백두산영웅청년려단과 각 도청년돌격대들에서 자체로 창안제작한 건설기공구들과 각지 청년동맹조직들에서 성의껏 마련한 210여종에 13만 9 000여점의 기공구들이 전시되였다.

전시회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고향군을 훌륭히 꾸리는 사업에 이바지할 충정의 마음안고 다짐기, 관접합기, 경위기를 비롯한 수많은 건설기공구들을 마련한 평양시, 량강도, 라선시청년동맹위원회의 일군들과 청년동맹원들이 평가되였다.

본사기자

다양화, 다종화, 다색화된 양말들이 생산되고있다.
—평양양말공장에서—

위대한 힘을 가진 불패의 나라, 전도가 양양한 강국

외국의 벗들 격찬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며 강국의 존엄과 위용을 떨쳐가는 우리 공화국의 자랑찬 모습은 외국인들의 경탄을 자아내고있다.

일본주체사상연구회대표단 단장 다께다 신지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선인민은 언제나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왔다.

적대세력들은 조선에 대한 전대미문의 압살책동에 매여달렸지만 결코 조선의 앞길을 막을수 없었다.

조선은 결심하면 무조건 해내는 나라이다.

우리는 걸출한 령도자를 높이 모시고 힘차게 나아가고있는 조선인민의 투쟁에서 커다란 고무를 받고있다.

영국조선친선협회 위원장 더모트 하드슨은 조선에서는 자강력제일주의가 구현되여 여러 분야에서 큰 전진이 이룩되고있다, 과학기술의 위력이 남김없이 시위되고있으며 수많은 건축물들이 련이어 일떠서고있다, 이것은 서방에서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것이다고 토로하였다.

네팔자력갱생연구회대표단 단장 릴라 마니 포크렐은 이렇게 강조하였다.

자기의 힘이 없으면 노예가 되고 자강력이 있으면 승리자가 된다.

이것은 조선인민이 오랜 투쟁기간에 체득한 력사의 진리이다.

조선에서는 짧은 기간에 경이적인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오직 자체의 힘을 믿고 자기 손으로 모든것을 창조해나가는 조선인민만이 이러한 기적을 창조할수 있다.

진보적인류는 조선인민의 승리를 확신하고있다.

아프리카지역 주체사상연구위원회 서기장 앙드레 로헤젤레 깔론다는 조선을 방문하여 깊은 인상을 받았다,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제재압살책동속에서도 조선은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날로 발전하는 조선의 모습은 령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쳐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나아가는 인민의 힘을 당할자 이 세상에 없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고 말하였다.

방글라데슈주체사상연구소대표단 단장 가리브 네와즈는 적지 않은 나라들이 남의 도움에 의한 경제발전을 기대하고있지만 조선은 자력자강으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발전을 이룩하고있다,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모든것을 창조하며 그 어떤 풍파에도 끄떡없이 전진하는 나라는 사회주의조선밖에 없다, 조선이야말로 위대한 힘을 가진 불패의 나라, 전도가 양양한 강국이다고 격찬하였다.

타이주체사상연구조직대표단 단장 쏭치트 풀랍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백절불굴의 정신력을 지닌 조선인민은 자체의 힘과 기술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며 자기 조국을 강력한 사회주의보루로 전변시켰다.

필승의 신심에 넘쳐 자기가 선택한 길을 따라 나아가는 조선인민에게는 점령 못할 요새, 불가능이란 없다.

존경하는 김정은각하의 령도밑에 조선인민은 세계가 보란듯이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울것이다.

본사기자

외세의 간섭을 용납하지 말아야

북남관계를 겨레의 지향과 시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켜나가려면 력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에 밝혀진대로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

민족자주는 조국통일3대헌장에 관통되여있는 기본정신이며 통일운동의 생명선이다.

민족문제는 본질에 있어서 민족의 자주성에 관한 문제이다. 민족자주는 민족의 생존과 발전의 근본담보이다.

자주성이 없으면 민족의 존재와 발전에 대해 결코 생각할수 없다. 오직 자주성을 생명처럼 귀중히 여기고 외세의 그 어떤 압력이나 간섭도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 민족만이 자주권과 존엄을 지키고 민족의 발전을 힘있게 추동해나갈수 있다.

민족자주의 원칙은 조국통일위업의 본성적요구로부터 출발하고있다. 조국통일문제는 본질에 있어서 외세에 의하여 북과 남으로 갈라진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이다. 조국통일운동 그자체가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배격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조국통일문제가 우리 민족자신의 문제이며 민족의 자주권에 관한 문제인것만큼 우리 겨레가 주인이 되여 민족의 의사와 요구에 따라 자주적으로 이룩해나가는것은 당연하다. 조선을 분렬시킨 외세가 우리 민족에게 조국통일을 선사해줄수 없다. 외세는 우리 민족이 하나로 통일되여 강대해지는것을 결코 바라지 않는다. 이것은 민족분렬의 오랜 력사가 보여주는 뼈저린 교훈이다.

우리 나라의 통일을 달가와하지 않는 외세에게는 오히려 조선의 분렬을 통하여 어부지리를 얻으려는 흉심만이 있다. 우리 민족에게 분렬을 강요한 외세에 의존하여 통일을 이루어보겠다는것은 어리석은 망상이고 예속의 올가미를 스스로 목에 거는것이나 다름없는짓이다.

오늘도 외세는 북과 남의 우리 민족이 단합하고 협력하는것을 사사건건 방해하고있다.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외세에 기대를 걸고 외세를 믿을것이 아니라 조선민족의 단합된 힘을 믿어야 한다. 숭배를 해도 자기 민족을 숭배하고 믿어도 자기 민족의 힘을 믿어야 하며 통일론의를 해도 자기 민족과 하여야 한다. 민족자주의식을 좀먹고 마비시키는 사대와 외세의존의 병집을 털어버리지 않고서는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지킬수 없고 나라와 민족의 번영도 이룩해나갈수 없다.

민족자주에 통일이 있고 민족번영의 창창한 앞날이 있다.

민족자주를 조국통일운동의 생명선으로 튼튼히 틀어쥐고나갈 때만이 우리 민족은 내외의 온갖 도전과 방해책동을 물리치고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활로를 열어나갈수 있다.

온 민족은 우리 조국을 영원히 갈라놓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지배자로 군림하려는 외세의 간섭과 전횡을 절대로 용납하지 말아야 하며 조국통일문제를 민족자결의 원칙에서 민족의 자주적요구에 맞게 풀어나가야 한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력사적인 북남선언들의 기치높이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기어이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고야말것이다.

김명강

절세의 위인에 대한 만민의 매혹과 칭송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은 한평생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우리 겨레와 진보적인류의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를 받으시는 탁월한 정치가, 희세의 위인이시다.

일찌기 혁명령도의 첫시기부터 특출한 령도적자질과 풍모로 명망높으시였던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뜨거운 경모와 매혹의 목소리는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더욱 뜨겁게 분출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뛰여난 천품과 비범한 령도력, 숭고한 덕망에 무한히 감동된 수많은 사람들은 그이를 《리념정립, 정치술 등 여러 면에서 응용력이 뛰여난 지도자》, 《높은 지적능력을 갖추고 판단력이 예민한 지도자》, 《지도자로서의 안목과 식견은 물론 합리성과 추진력을 동시에 갖춘 치밀한 지도자》,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평범하면서도 정치가로서는 굉장히 능력있고 비범한 지도자》로 높이 칭송하였다.

참으로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존칭과 찬사는 이루 헤아릴수 없이 많다.

그토록 만사람의 심금을 끝없이 울려주는 하많은 칭송가운데는 《**김정일**장군님은 천하를 얻고 천하를 움직이시는 멋진 지도자이시다.》라는 격동적인 찬사도 있다.

《천하를 얻고 천하를 움직이시는 멋진 지도자!》, 이것은 가장 탁월한 정치가이시며 참다운 인민적령도자이신 어버이장군님의 위대성과 불멸의 업적을 통속적으로 구가한 심장의 웨침이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은 비범한 천품과 자질, 숭고한 풍모와 고매한 덕망으로 천하를 얻으신 절세의 위인이시다.

력사에는 위인이라 불리운 사람들이 없지 않다. 그러나 위대한 장군님처럼 출중한 위인상과 비상한 정치실력, 고결한 덕망으로 우리 인민들뿐아니라 온 겨레와 세계 진보적인류로부터 위인중의 위인으로 높이 칭송받으신분은 일찌기 없었다.

로씨야의 《근로하는 로씨야운동》위원장은 저서 《정치원로》에서 어버이장군님의 특출한 위인상에 대하여 여러가지 측면으로 서술하면서 《**김정일**동지는 이 세상에서 가장 권위있고 자주적인 정치가, 인민적인 정치의 거장이시다.》라고 격조높이 칭송하였다. 전 쏘련국방상 야조브는 위대한 장군님을 만나뵙고 륙해공군의 모든 병종의 군사과학과 현대전의 전략전술, 전투조법들에 이르기까지 군사의 모든 분야를 환히 꿰뚫고계시는 그이의 군사적천재성에 깊이 감동하여 《저는 오늘 **김정일**동지의 폭넓은 군사적식견과 해박한 지식에 완전히 손을 들었습니다. **김정일**동지는 정치의 대가이실뿐아니라 군사에서도 특출한 대가이십니다.》라고 흥분된 심정을 토로하였었다.

유럽동맹최고위급대표단을 인솔하고 조선을 방문하였던 유럽리사회 의장이며 스웨리예수상이였던 페르쏜은 위대한 장군님을 만나뵈온 소감에 대해 말하면서 조선령도자는 내가 지금까지 만나본 세계 여러 나라 지도자들가운데서 가장 훌륭한 지도자이시라고 격찬하였다. 서유럽국가들의 련합체를 대표하는 정치인인 그가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러 터친 매혹과 흠모의 정은 세계에 일대 충격파를 일으켰다.

매혹과 흠모는 강요에 의해서는 절대로 이루어질수 없는 인간의 감정이다.

하다면 어찌하여 사상과 제도, 정견과 신앙, 사고방식과 생활체험도 각이한 사람들이 위대한 장군님을 만나뵙기만 하면 누구나 다 그이께 마음이 끌리우고 찬사를 터친것인가.

그것은 어버이장군님께서 너무도 위대하신분이시였기때문이다.

위대한 장군님은 천하를 움직이신 세계정치의 원로이시다.

일찍부터 나라와 민족의 존엄을 높이 떨치시고 인류자주위업을 승리적으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새 천년기가 시작되는 력사의 분기점에서 비범한 지략과 령활한 자주외교로 세계정치사에서 찾아볼수 없는 사변들을 마련하시였다.

새 천년기가 시작되는 첫해에 로씨야국가수반으로서는 처음으로 되는 뿌찐대통령의 조선방문과 그후 여러차례 진행된 두 나라 령도자들의 상봉은 조로친선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확대발전시키는데서 획기적인 사변으로 되였다.

공화국을 방문하여 위대한 장군님을 만나뵈온 뿌찐대통령은 방문소감을 묻는 기자들에게 《**김정일**국방위원장은 교양있고 국제문제에 정통한 해박한 정치인》이라고 말하였다.

공화국의 대외적권위와 영향력이 비상히 높아가고있는 속에 많은 나라들이 조선과의 관계를 확대발전시키는데로 나아갔다.

새 세기초에 들어서면서 세계 여러 나라의 많은 정치가들과 외교관들은 조선반도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의 평가를 기준으로 삼던 때는 지나갔다, 조선과의 선린우호관계를 발전시켜나가는것은 시대적요구이라고 하면서 조선과의 관계개선에 앞을 다투어 나섰다. 결국 이딸리아, 영국을 비롯하여 많은 나라들이 련이어 조선과 외교관계를 맺는 경이적인 사변이 일어났다. 말그대로 온 지구상에 사회주의조선과의 관계개선에로 나아가는 바람이 휩쓸었다.

이러한 대세의 흐름속에서 유럽동맹이 조선과의 새로운 관계수립에 나섰다.

새 천년기를 계기로 유럽동맹은 《유럽인을 위한 유럽건설》을 표방하면서 점차 미국의 일방주의적패권전략에 맞서 국제문제들에서 독자적인 대외정책을 실시하였다.

바로 이러한 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유럽동맹최고위급대표단을 만나주시고 국제관계에서 제기되는 일련의 문제들에 대하여 명철한 해답을 주시였다. 유럽동맹의 고위인물들은 정치, 경제, 군사 등 모든 분야를 환히 꿰뚫고계시며 복잡하게 제기되는 국제정치문제들에 대하여 현명한 가르치심을 주시는 위대한 장군님께 매혹되여 경탄을 터치였다. 그후 얼마 지나지 않아 유럽동맹성원국외무상회의에서는 유럽동맹이 조선과의 외교관계를 맺는다는 결정을 공식채택하였다.

유럽의 한 조선문제전문가는 자기의 글에서 이렇게 강조하였다. 《1990년대 중엽부터 오늘까지 조선에서 3대기적이 일어났다. 첫째로. 국제정치무대에서 완전히 없어질번 했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명실공히 사회주의를 대표하는 국가로 우뚝 솟은것, 둘째로. 조선인민이 죽음의 나락을 딛고 올라서서 강성국가건설에로 나가고있는것, 셋째로. 지난 시기 조선을 죽이겠다고 덤벼든 미국과 서방나라들이 이 나라에 화해의 손을 내민것이다.》

이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비상히 높아진 공화국의 대외적권위에 대한 세계의 공인이며 경탄이였다. 이처럼 세기와 세기를 이어 우리 공화국이 이룩한 정치, 군사, 외교적승리는 바로 위대한 장군님의 확고한 자주사상과 비범한 지략, 현명한 령도의 자랑찬 결실이다.

조선의 모습에서 진보적인류는 탁월한 령도자를 모시고 자주리념을 확고히 견지해나간다면 비록 작은 나라, 작은 민족이라도 자기 운명을 자체로 개척해나갈수 있는 강대한 나라, 위대한 민족으로 존엄떨칠수 있다는것을 진리로 확인하였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만민의 열렬한 칭송은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오늘도 국적과 민족, 사상과 정견,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세계의 방방곡곡에서 끊임없이 울려퍼지고있다.

정녕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평생 조국과 인민, 시대와 력사앞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은 력사의 흐름과 더불어 길이 빛날것이다.

오늘 공화국의 인민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사상과 탁월한 령도력, 고매한 덕망을 그대로 체현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고 세기적변혁과 창조의 새 력사를 수놓아가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은 천재적인 예지와 비상한 창조력,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천품으로 지니신 또 한분의 위인이시며 참다운 인민적령도자, 세계정치의 거장이시다.

온 누리를 밝히는 태양과도 같이 세계정치의 중심에 거연히 서시여 세기를 빛내여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령도가 있기에 공화국은 사회주의강국의 령마루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있으며 민족적화해와 평화번영, 자주통일의 새시대가 펼쳐지게 되였다.

세계 여러 나라의 정계, 사회계에서는 《사회주의조선이 없었다면 지구상에서 진정한 평화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을것이다.》라는 목소리가 울려나오고있다.

외국의 한 인사는 《오늘 조선은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위업을 드팀없이 계승해나가시는 또 한분의 걸출한 령도자이신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여 반제자주를 위한 투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고있다. 조선은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나라들의 귀감이며 희망의 등대이다.》라고 토로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에 의하여 오늘 공화국의 존엄과 위력은 더욱 높이 떨쳐지고있다.

유럽의 한 정치평론가는 《오늘 세계정치기류가 지배와 굴종으로부터 자주의 기류로 뒤바뀌여지고있는것이 특징이다. 조선은 확고히 새로운 세계정치흐름의 방향타를 쥔 지위에 있다고 말할수 있다.》고 평하였다.

이 땅우에 펼쳐지는 비상히 놀라운 변혁과 창조, 국제정치관계의 격동적인 변화발전흐름은 위인이 력사를 창조한다는 심오한 진리를 다시금 뚜렷이 새겨주고있다.

우리 겨레와 진보적인류의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를 받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여 공화국의 미래는 밝고 창창하며 온 겨레가 바라는 통일의 그날도 반드시 오게 될것이다.

김령성

여러차례 조선을 방문하여

세계자주화위업수행에 불멸의 업적을 쌓으신 위대한 **김일성**주석을 만나뵙고 그이께 매혹된 사람들중에는 탄자니아의 니에레레도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78(1989)년 7월 어느날 탄자니아혁명당 위원장으로서 공화국을 방문한 니에레레를 접견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석상에서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세우는 문제와 남남협조문제, 일부 아프리카나라들에서 자유화바람에 다당제를 받아들인 결과 혼란과 민족분쟁이 일어난 문제 등 그가 제기한 문제들에 대하여 일일이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주의깊게 듣고난 니에레레는 그이께 이젠 자기의 《축전지》는 충분히 충전되였다고, 이전에는 다른 사람들의 드센 《공격》에 자기의 《축전지》가 구멍이 뚫려져 새고있었는데 이젠 완전히 충전되였다고 흥분에 겨워 말씀드렸다.

그의 고백에는 정세변화와 대국들의 압력에 흔들리면서 잠시나마 동요하려고 했던 자신이 수령님의 교시를 받으며 정신을 차렸다는 솔직한 심정이 담겨져있었다.

이어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 자기의 《축전지》의 능력이 약화될 때마다 조선에 오겠다고 하면서 자기가 따라배워야 할 유일한 모범의 나라는 조선이라고, 자력갱생의 원칙에 기초하여 사회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고있는 유일한 나라는 조선으로 보고있다고 자기의 진정을 말씀드렸다.

주체70(1981)년 3월 당시 탄자니아련합공화국 대통령으로서 공화국을 방문하였을 때에도 니에레레는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뵙고 귀중한 가르치심을 받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와 담화를 하시면서 자주적인 사회주의나라를 건설하려면 이제부터라도 기계공업기지를 창설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강재를 자체로 생산하지 못하면 다른 나라에서 사다가라도 자기 손으로 기계를 만들어야 한다, 다른 나라사람들도 자체로 기계를 만들고있는데 탄자니아사람들이라고 기계를 만들지 못하겠는가, 기계공업을 발전시키는 경우에는 농촌경리에 복무하는 기계공장들부터 건설하는것이 좋을것 같다, 먼저 양수기같은것을 자체로 만들어보는것이 좋겠다고 하시였다.

니에레레는 귀중한 조언과 충고를 주어 매우 감사하다고 하면서 주석각하의 말씀이 전적으로 옳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돌아가면 주석각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자주적인 나라를 건설하겠다고 하였으며 조선방문을 마치고 비행기에 오르면서도 이에 대하여 주석각하앞에서 다시한번 맹세한다고 하였다.

니에레레는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뵙고 귀중한 가르치심을 받을 때마다 새로운 결심을 다지군 하였다. 하기에 그는 아프리카땅에 조성된 복잡한 정세속에서도 자기의 정신적《축전지》를 그이의 사상으로만 충전하기 위하여 다시 공화국을 방문하였던것이다.

본사기자 고성호

◎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

좋은 소식을 기다리겠다고 하시며

주체101(2012)년 4월 어느날이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평양의 보통강기슭에 자리잡고있는 만수교고기상점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여러차례 건설현장을 찾으시고 시공에서 인민성, 친절성을 철저히 구현하여 상점을 인민의 편리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상업시설로 건설하도록 보살펴주신 그이께서는 그날 또다시 상점을 찾으시여 상점내부와 상품들을 일일이 돌아보시였다.

2층매장들을 돌아보시고 3층로대에 이르신 그이께서는 주변경치가 아주 좋다고, 고기상점자리가 명당자리라고 기쁨에 겨워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철갑상어, 룡정어, 메기 등 물고기들이 헤염치며 노니는 대형어항쪽으로 걸음을 옮기시여 유심히 눈여겨보시였다.

그러시고는 진렬대들에 쌓여있는 닭, 칠면조, 메추리, 소, 돼지 등 고기류와 꿀바싸, 여러가지 통졸임들도 보시였다. 이어 조미료매대에 있는 콩기름, 들깨기름을 비롯한 각종 식용기름들을 보시고는 인민들에게 기름을 떨구지 말고 팔아주도록 할데 대하여 이르시였다.

그러시면서 고기상점의 운영과 상품보장과 관련한 대책적문제들을 가르치신 그이께서는 인민들이 만수교고기상점의 덕을 본다는 좋은 소식을 기다리겠다고 하시였다.

상점을 리용하며 행복의 웃음소리, 기쁨의 목소리를 터치는 인민의 모습을 그려보시며 하신 말씀이였다.

인민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공장

주체105(2016)년 6월 어느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평양의 풍치수려한 룡악산기슭에 건설되고있는 룡악산비누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건설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며 공장건설이 빠른 속도로 진척되고있는데 대하여 못내 기뻐하신 그이께서는 이 공장은 우리 인민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공장이라고, 우리 당이 완공을 기다리는 공장이라고 하시였다.

몸소 공장부지도 정하여주시고 공장의 이름도 달아주시며 설계로부터 시공에 이르기까지 건설과 관련한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신 그이의 세심한 지도와 보살피심에 의하여 공장은 드디여 질좋고 수요높은 여러가지 비누를 생산하는 공장으로 건설되게 되였다.

몇달후 완공된 공장을 현지지도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공장이 또 하나 일떠섰다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룡악산비누공장에서 생산한 여러가지 물비누와 세척제를 받아안고 좋아할 인민들을 생각하니 정말 기분이 좋다고, 쌓였던 피로가 풀린다고 하시며 환히 웃으시였다.

본사기자

과학교육사업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시여

과학과 교육중시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국가건설과 활동에서 시종일관 견지하신 로선이다.

천리혜안의 예지와 비범한 통찰력을 지니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건국의 첫 기슭에서부터 과학교육발전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해방직후 그이께서는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의 첫 의정으로 연필문제를 토론하도록 하시였다.

당시 식량문제, 토지개혁문제, 산업부흥문제 등 절박한 문제들에 대하여서는 누구나 다 알고있었지만 연필생산문제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문제였다.

하지만 나라와 민족의 먼 앞날까지 내다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연필문제를 새 조선건설의 가장 중요하고도 선차적인 문제의 하나로 내세우신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후날 그에 대하여 회고하시며 우리는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의 첫 의정으로 연필문제를 토의하고 연필을 생산하는것으로부터 새 조국의 경제건설을 시작하였다고 하시였다.

과학과 교육의 발전을 떠난 혁명의 전진이란 있을수 없다는것을 통찰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금싸래기를 고르듯 곳곳에 있는 지식인들을 찾는 일에 천만자루의 품을 들이시였다. 농민들이 삼가 올린 애국미로 종합대학교사를 짓도록 하시였으며 가렬한 전화의 나날에도 과학원(당시)을 설립하도록 하시였고 싸우는 군인 한명한명이 귀하였지만 승리할 조국의 래일을 위해 전선의 군인들을 대학으로 소환하도록 하는 세계전쟁사에 있어보지 못한 조치도 취하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육중시, 과학중시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자체의 힘과 기술로 자동차, 뜨락또르, 전기기관차와 같은 현대적인 기계설비들도 만들어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여놓으신 과학교육사업의 토대를 더욱 굳건히 다지기 위하여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이 사업을 혁명의 명맥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로 내세우시고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과학사업을 그토록 중시하시였기에 그이께서는 언제인가 과학자들이 과학절을 제정하도록 하여주실것을 소망하였을 때 매년, 매월이 과학절과 같다는 뜻깊은 친필도 보내주시였다.

과학기술중시를 사회주의강국건설의 3대기둥의 하나로, 국가의 전략적로선으로 제시하신 그이께서는 류례없이 간고하였던 고난의 행군시기에도 과학연구기지들을 현지지도하시며 과학자들이 주체적립장에 튼튼히 서서 과학연구를 하도록 보살펴주시였다. 주체철, 주체비료, 주체섬유 그리고 현대적인 CNC기계설비들을 비롯한 창조물들에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 기울이신 그이의 심혈과 로고가 비끼여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후대들을 키우는 사업을 한걸음 늦추면 조국의 전진이 열걸음 떠진다고 하시며 교육발전에 큰 힘을 넣으시고 인재육성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끄시였다. 그이의 정력적인 령도의 손길에 의하여 온 나라의 교정들에서 배움의 글소리 높이 울리고 수많은 인재들이 자라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원대한 구상과 높은 뜻을 받드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탁월한 령도에 의하여 나라의 과학교육사업은 끊임없이 발전하고있다.

사회주의건설이 과학으로 비약하고 휘황한 미래가 교육으로 밝아오고있다.

문동기

다함없는 흠모의 마음을 담아

사슴뿔공예 《곰사냥》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 주체103(2014)년 6월 로씨야 에르에르그룹유한책임회사 총사장 물라누르라프하또비치 니자모브가 올린 선물이다.

총사장은 조선의 사회주의건설을 현명하게 령도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신뢰와 존경의 마음에서 그이께 따따르사람들의 민족풍습이 담겨진 선물을 올리기로 하였다.

하여 오랜 창작경험을 가진 유명한 조각가가 총사장의 마음을 담아 따따르스딴령내에서 잡은 사슴의 뿔로 3개월동안 모든 정성을 다하여 뿔공예품을 선물로 마련하였다.

선물은 사슴가죽을 바탕으로 사슴뿔에 곰을 사냥하는 장면을 형상하였다.

사슴뿔안에 새겨진 사냥군과 곰, 제일 긴 뿔가지 끝에 형상된 독수리는 반공화국적대세력의 압력과 도전을 물리치며 사회주의위업을 굳건히 수호해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무비의 담력과 배짱, 불굴의 기상을 형상하고있다. 5개로 뻗어나간 사슴뿔의 가지는 조선을 끝없이 동경하고있는 세계 5대륙인민들을 형상하였다.

선물에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건강을 바라는 총사장의 마음이 담겨져있다.

액틀은 가로 58.8cm, 세로 31cm, 두께 2.5cm, 공예품은 가로 44.3cm, 세로 24.3cm, 두께 7cm이다.

총사장은 선물을 전달하면서 《오늘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 제국주의의 악랄한 책동으로 인민들의 자주권이 무참히 유린되고있지만 사회주의를 변함없이 고수하고있는 조선은 인민들에게 존엄높은 삶과 행복을 보장해주고있습니다. 이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떠나서는 생각할수 없습니다. 온 세계가 걸출한 령도자로 높이 칭송하고있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마음을 담아 이 소박한 선물을 그이께 삼가 드립니다.》라고 말하였다.

김일현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지난 10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대의원선거를 위한 제10호구 제40호분구선거장에서 선거에 참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김책공업종합대학에 꾸려진 선거장에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인 김책공업종합대학 총장에게 투표하시고 그와 담화를 나누시였다. 그이께서는 담화에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주요전구마다에서 김책공업종합대학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다고 대학이 차지하는 위치와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하시고 대학이 나아갈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였다.

과학과 교육은 국가건설의 기초이며 국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이다. 과학기술과 교육의 발전수준에 국가의 흥망성쇠가 좌우된다.

공화국이 사회주의건설에서 과학기술강국건설을 선차적인 목표로 내세운것도, 시종일관하게 교육중시, 인재중시로선을 견지하고있는것도 바로 이때문이다.

선견지명의 예지와 비범한 통찰력을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과학교육사업을 가장 중차대한 문제, 초미의 문제로 내세우시고 과학교육발전에 언제나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서도 과학기술강국건설에 박차를 가하여 짧은 기간에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서 새로운 비약을 이룩하며 과학으로 흥하는 시대를 열고 사회주의건설에서 혁명적전환을 가져와야 한다고 하시면서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지난해 1월 국가과학원을 현지지도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의 과학자들은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정말 큰일을 하고있다고 과학자들의 수고를 높이 치하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과학연구사업에서 종자를 바로 잡고 력량을 집중하여 훌륭한 과학연구성과들을 이룩하도록 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과학기술발전을 위해 기울이시는 그이의 크나큰 심혈과 로고에 의하여 나라의 과학기술은 최근 몇해사이에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길에서 기관차의 역할을 하고있다.

세계적으로 발전된 몇개 나라의 독점물로 되고있는 아크릴계칠감생산공정도 자체로 연구개발완성하였고 첨단기술인 량자암호통신기술도 자체로 개발하였다. 정보기술, 나노기술 등 핵심기초기술과 새 재료기술, 새 에네르기기술 등 과학기술분야에서 놀라운 발전을 이룩하였다.

나라의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과학기술로 발전하고 과학기술로 살아가는 현시대에 남들이 걸은 길을 따라만 갈것이 아니라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세기를 주름잡아 도약해나가야 한다고 하시며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세계를 굽어보는 높은 목표와 창조적안목을 가지고 대담하게 실천하도록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령도의 자랑찬 결실이다.

교육이 발전하여야 나라가 발전한다. 인재가 많으면 작은 나라도 강한 국력을 가지고 흥할수 있지만 인재가 없으면 광대한 령토와 풍부한 자원도 빛을 낼수 없으며 사회적발전을 이룩할수 없다.

교육사업을 만년대계의 애국사업으로 여기시고 교육발전에 커다란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비범한 령도에 의하여 공화국의 교육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고있다.

뿌리가 든든하여야 충실한 열매가 달리는것처럼 교육에서 중등일반교육수준이 높아야 앞날의 훌륭한 인재들을 키워낼수 있다.

세계교육발전추세와 나라의 교육실태를 통찰하고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이 실시되여 국가의 교육체계가 더욱 완비되게 되였다.

학술형인재들과 실천형인재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체계를 갱신하고 정비하며 대학들을 종합대학화, 일원화하는 사업에 힘을 넣어 고등교육의 전반적수준이 높아지고있다. 대학들이 교육과 과학연구, 생산이 하나로 밀착된 지식경제시대의 일류급대학으로 발전하고있다.

교육조건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도 힘있게 벌어져 학교들과 대학들에서 교육시설과 실험실습기재, 체육기자재들이 더욱 현대화되고있으며 교수와 실험실습과정의 정보화가 실현되고 교실들은 다기능화된 교실로 일신되고있다.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을 비롯한 현대적인 살림집들에는 교육자들이 조국의 미래를 가꾸는데서 뿌리가 되고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터운 믿음과 사랑이 어리여있다. 평양가방공장, 민들레학습장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에도 나라의 역군으로 자라는 후대들에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세심한 사랑과 배려가 깃들어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과학교육중시정책과 정력적인 령도에서 더욱 륭성번영할 사회주의강국의 미래를 그려본다.

본사기자 리 설

과학으로 조국을 빛낼 결의에 넘쳐있는 김책공업종합대학 학생들

인민대중제일주의가 철저히 구현된 나라

여러 나라 출판보도물이 찬양

여러 나라 출판보도물은 인민을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로 내세우고 모든것이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에 대하여 널리 소개선전하고있다.

쿠웨이트신문 《타임스》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야말로 전인류가 리상으로 그려보는 인민의 나라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는 국호와 마찬가지로 인민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는것이 수없이 많다.

이것은 사회주의 조선을 참다운 인민의 나라로 건설하려는 공화국의 투철한 립장의 반영이다.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을 비롯한 구호들, 《인민의 심부름군》, 《인민의 충복》과 같은 시대어들과 더불어 온 사회에 인민사랑의 열풍이 차넘치는것이 바로 조선식사회주의의 특징이다.

영국선군정치연구협회는 인터네트홈페지에 다음과 같은 글을 실었다.

이 세상 모두가 애타게 바라는 삶의 품이 바로 진정한 조국, 참다운 인민의 나라이다.

그러나 바란다고 하여 이런 행복의 요람에 누구나 다 안기지 못한다.

하다면 그러한 삶의 품은 과연 어디인가.

그것은 인류사의 가장 걸출한 대성인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창건하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조선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인민대중제일주의가 철저히 구현된 인민의 락원으로 전변되였다.

민주꽁고주체사상연구전국위원회 인터네트홈페지는 이런 글을 올렸다.

선대수령들의 위업을 이어나가시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인민을 위한 길을 끊임없이 걷고계신다.

그이께서는 언제나 인민들속에 계시면서 인민의 의사와 요구를 제때에 헤아리시고 그것을 당과 국가의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신다.

또한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는것을 어길수 없는 철칙으로 내세우신다.

조선인민이 사회주의를 생명으로, 생활로 간주하는것은 결코 우연치 않다.

조선의 사회주의가 승승장구하는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로씨야의 인터네트잡지 《렘취취》는 미국의 한 정치평론가가 조선은 인민적시책이 진한 전형적인 나라라고 평한 사실을 전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지금까지 세계가 평가해온 강국들은 인구수나 령토의 크기, 자원이나 재부, 지정학적위치의 유리성으로 하여 다른 나라들보다 정치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우위를 차지한 나라들이였다.

그러나 조선은 인민대중제일주의에 기초하여 건설된 완전히 새로운 형의 강국이며 그 어떤 대국도 지닐수 없는 거대한 힘과 영원한 생명력을 가진 인민의 나라이다.

조선에서는 인민들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사회정치활동에 적극 참가하고있다고 하면서 로씨야의 인터네트홈페지 《오늘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이렇게 보도하였다.

조선의 평범한 근로자들은 직업과 지식정도 등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고 최고인민회의를 비롯한 각급 주권기관 대의원으로 선거되고있다.

그들은 자기의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있다.

모든 법과 정책에 근로인민의 요구와 리익이 철저히 반영되여있으며 공장을 건설하고 작업장을 꾸려도 그곳에서 일하게 될 사람들의 건강과 편의가 우선시되는 조선이야말로 참다운 인권이 보장된 나라이다.

김일성김정일명칭 전국벨라루씨 조선인민의 친우협회는 인터네트홈페지에 다음과 같은 글을 게재하였다.

조선의 정책들은 한정된 분야가 아니라 전국가적범위에서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되는 전반적이면서도 완전한것이다.

또한 조건과 환경에 관계없이 시종일관하게 실시되고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계통적으로 끊임없이 향상시켜나가는 정책들이다.

수십년간 지속되는 극악한 제재와 봉쇄속에서도 인민적시책들이 변함없이 계속 실시되고있다는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다.

이것은 조선식사회주의가 필승불패임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방글라데슈신문 《데일리 포크》는 세기적인 락후와 빈궁만이 남아있던 조선이 70여년이라는 력사적기간에 오늘과 같이 변모될수 있은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들을 모신데 있다, 김정은각하의 령도밑에 조선은 더 밝은 래일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할것이다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자기의 힘으로 더 밝은 미래를

지금 국제사회계는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부닥치는 난관을 맞받아 뚫고나아가면서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고있는 공화국의 현실에 대해 놀라움과 경탄을 표시하고있다.

방글라데슈의 한 사회계인사는 적지 않은 나라들이 남의 도움에 의한 경제발전을 기대하고있지만 조선은 자력자강으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발전을 이룩하고있다,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모든것을 창조하며 그 어떤 풍파에도 끄떡없이 전진하는 나라는 사회주의조선밖에 없다, 조선이야말로 위대한 힘을 가진 불패의 나라, 전도가 양양한 강국이다고 격찬하였다.

민주꽁고의 한 인터네트통신에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지금까지 떠들어온 서방의 선전과는 너무나도 다른 나라라는것이 알려지고있다, 특히 세인을 놀라게 하는것은 수십년간에 걸치는 제재와 봉쇄속에서도 조선에 웅장화려한 도시들이 건설되였다는 점이다, 조선에 가본 사람들은 일치하게 그 요인은 어떤 시련과 난관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이 나라 인민의 비상한 정신력에 있다고 말하고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실리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류례없이 악랄한 제재압살책동속에서도 발전을 이룩하고있는 주체조선의 위력과 공화국인민들이 지닌 불굴의 정신력에 대한 찬사라고 해야 할것이다.

자력갱생의 정신은 공화국의 전 력사에 관통되여있는 정신이고 기적과 비약의 원동력이다.

바로 이 정신이 있었기에 공화국은 부닥치는 시련과 난관도 이겨내며 자주와 존엄, 승리의 력사를 새겨올수 있었다.

최근 몇해어간에만도 공화국은 창조와 건설에서 경이적인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훌륭하게 일떠선 문수물놀이장과 마식령스키장, 미림승마구락부,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평양국제비행장, 과학기술전당, 미래과학자거리, 려명거리, 현대적으로 일떠선 산업시설들 …

황금산, 황금벌의 력사가 흐르는 속에 황금해의 새 력사가 펼쳐지고 자체의 힘과 기술, 자재로 지하전동차와 뜨락또르, 궤도전차, 무궤도전차, 뻐스, 자동차 등도 생산해내고있다.

《금컵》, 《릉라》, 《봄맞이》, 《봄향기》, 《철쭉》, 《민들레》, 《매봉산》과 같은 인기있는 국내산 제품들도 경공업분야의 질적, 량적장성을 충분히 짐작케 해준다.

자력자강의 정신력을 발휘하며 공화국의 경제는 나날이 발전하고있다.

적대세력의 반공화국제재압살책동은 집요하고 악랄하지만 자립적민족경제의 위력, 자력갱생의 힘으로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대진군을 힘차게 벌리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지난해 4월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제시하시고 그 관철에로 전체 인민을 불러일으키시였다.

도처에서 인민경제의 주체성과 자립성을 백방으로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고 삼지연군안의 건설장들과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장, 단천발전소건설장을 비롯한 건설전역에서 혁신적성과들이 이룩되고있다. 날바다를 가로지르며 고암—답촌철길이 일떠선것은 령도자의 구상과 결심이라면 산도 떠옮기고 바다도 메우려는 불같은 열의로 충만된 공화국인민들의 자력갱생의 정신이 안아온것이다.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는 주체사상은 공화국인민의 좌우명으로 되고있다.

자기의 손으로 더 좋은 래일을 안아오겠다는 강한 민족자존의 정신, 모든것을 자체의 힘과 기술로, 자기 식으로 만들어야 그것이 더욱 소중하고 빛이 난다는 철리를 실천으로 증명하는 인민의 불타는 애국충정과 견인불발의 의지가 모든 난관과 시련을 박차고 세인을 경탄시키는 기념비적창조물들을 일떠세우고있는것이다.

지난해 10월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적대세력들이 우리 인민의 복리증진과 발전을 가로막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굴복시켜보려고 악랄한 제재책동에만 어리석게 광분하고있지만 시련속에서 자기의 힘을 백배로 비축한 우리 국가가 어떻게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의 손으로 강대한 나라를 꾸려나가는가를 시간의 흐름과 함께 뚜렷이 보게 될것이라고 하시면서 모두가 대중적영웅주의, 견인불발의 투지를 발휘하여 로동당시대의 투쟁본때, 우리 국가의 발전잠재력, 우리 식 발전속도를 만천하에 다시한번 과시하자고 하시였다.

번영에로 나아가는 인민의 투쟁은 간고하다. 그러나 이룩해나가는 승리가 자기의 힘, 자기의 기술, 자기의 자원에 의거한것이기에 공화국인민들이 느끼는 보람과 행복은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는것이며 적대세력의 제재책동은 오히려 조선인민의 정신력을 배가해줄뿐이다.

공화국의 인민들은 앞으로도 자기의 힘과 지혜로 사회주의의 더 밝은 미래를 앞당겨나갈것이다.

한철진

자력갱생의 힘으로

려명거리건설의 신화

세인을 놀래우며 려명거리가 일떠선지 어느덧 2년이 흘렀다.

아담한 다층건축군, 웅장화려한 초고층건축군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조형화, 예술화, 록색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려명거리.

지금 이곳에서는 훌륭한 살림집에 행복의 보금자리를 편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울려퍼지고있다.

거리에 넘치는 생활의 활기, 사람들의 얼굴에 피여나는 구김살없는 밝은 웃음, 약동하는 숨결이 가슴한가득 느껴지는 모습을 보느라니 려명거리를 돌아본 외국인들이 한 말이 떠오른다.

《려명거리는 력사상 류례없이 가혹하고 장기적인 제재와 경제봉쇄속에서 이루어진 기적이고 신화이다.》

《오늘도 조선에 대한 제재는 계속된다. 신기하게도 제재는 창전거리를 낳고 미래과학자거리를 낳고 려명거리를 낳았다.》

…

사실 건물 한채를 세우는데도 품이 많이 드는데 옹근 하나의 새 거리를 그것도 1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최상의 수준에서 일떠세운다는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거기에다 공화국은 평온한 환경에서 이 거리를 건설한것이 아니였다.

지금으로부터 3년전인 2016년 3월, 적대세력들은 력사상 그 어느 갈피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야만적인 제재소동과 전쟁도발책동으로 공화국인민들의 삶의 공간을 완전히 질식시키려고 발악하였다.

이제 조선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것인가. 세계의 이목은 조선으로 향하였다.

바로 그때 이 땅에서는 사람들의 예상을 뒤집어엎는 일이 일어났다.

2016년 3월 17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몸소 현지에 나오시여 려명거리건설을 선포하시고 건설에서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남들같으면 열백번도 더 주저앉았을 최악의 조건에서 그처럼 방대한 건설목표를 내세우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담대한 결단력에 세계는 깜짝 놀랐다.

려명거리건설은 단순히 하나의 거리를 일떠세우는 공사가 아니라 적대세력들과의 치렬한 대결전이였다.

사실 90여정보의 넓은 부지에 44동의 초고층, 고층, 다층살림집과 40여동의 공공건물을 새로 일떠세우고 70여동의 살림집과 공공건물을 개건해야 하는 려명거리건설은 실로 방대하고도 아름찬 공사였다.

더우기 함북도 북부피해복구라는 예상치 못했던 난관이 조성되자 적대세력들은 려명거리건설이 실패할수밖에 없다고 쾌재를 올렸다.

그러나 그들은 령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친 공화국인민들의 정신력, 제재를 이겨내는 조선의 힘을 너무나 몰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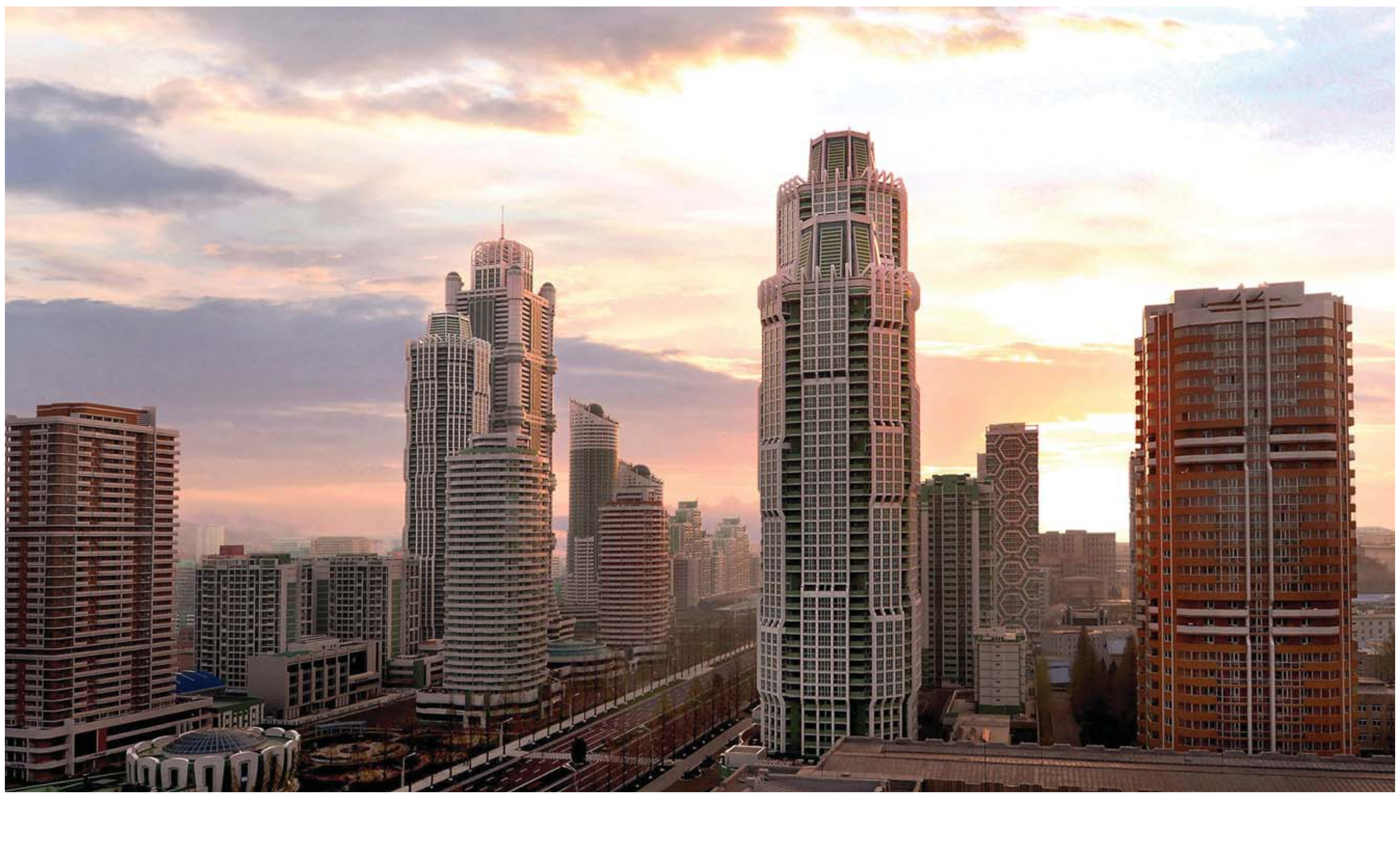
건설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 건설장적으로 매일 평균 백수십여세대의 살림집골조가 형성되였으며 착공후 단 74일만에 70층살림집골조가 완공되여 사람들을 놀래웠다.

건설장주변에서 사는 주민들은 아침출근길에 1층까지 오른 골조를 보았다면 저녁퇴근길에는 2층계선을 넘어선 골조를 보며 눈을 비비였다. 어떤 날에는 두개층이 단번에 솟구쳐오른 사실에 깜짝 놀라 몇번이고 다시 바라본 사람들도 있었다.

려명거리는 설계와 시공은 물론이고 매 건물들마다에 적용된 록색건축기술과 건설자재들에 이르기까지 다 자체의 과학기술력량과 건설력량의 창조적지혜와 힘의 결실이다.

진정 려명거리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강국건설의 애국위업을 한마음한뜻으로 받들어나가는 인민의 불굴의 정신력, 자력갱생을 위대한 동력으로 하여 나날이 비약하는 공화국의 무한대한 발전잠재력이야말로 적대세력들의 제재를 물거품으로 만드는 조선의 힘이라는것을 보여준 자랑찬 창조물이다.

본사기자 김춘경



우려스러운 북남선언리행의지

얼마전 남조선당국이 올해 북남관계추진방향과 목표, 실행과제를 담은 《2019년 통일부업무계획》이라는것을 발표하였다.

온 겨레가 력사적인 북남선언들을 철저히 리행하여 평화번영과 통일의 전성기를 열어나갈것을 념원하고있는 오늘날 남조선당국이 내놓은 《2019년 통일부업무계획》의 내용들은 상식이하이다.

력사적인 북남선언들은 단순한 당국사이의 합의가 아니라 온 민족앞에 한 엄숙한 확약이다. 남조선당국이 북남선언들을 리행할것을 바라는 온 겨레의 념원과 배치되는 《2019년 통일부업무계획》을 발표한것은 민심의 요구를 저버린 행동이라고밖에 달리 평가할수 없다.

《2019년 통일부업무계획》에서 간과할수 없는것은 남조선당국이 《북미협상진전의 견인》, 《긴밀한 공조》같은것을 운운하면서 코를 들이밀데 안 들이밀데를 가리지 못하고 푼수없이 헤덤비며 스스로 제 발목을 비끄러매는 어리석은짓을 하고있는것이다. 그런가 하면 《제재의 틀안에서의 협력교류》를 운운하면서 북남선언에 합의한 당사자로서의 지위도 례의도 다 줴버리고 체면유지에만 급급하고있다.

《업무계획》에서 인도적문제로 내든 《국군포로》, 《랍북자》, 《억류자》문제해결, 《탈북자》지원, 북주민들의 실질적《인권》증진따위의 불순한 궤변들에서는 지난 보수《정권》시기의 대결악취밖에 풍기는것이 없다.

사실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통일부의 《업무계획》에서는 북남선언리행을 위한 진정성도, 의지도 찾아볼수 없다.

북남선언들을 채택한지 불과 1년도 못되여 선언리행의지가 보이지 않는 《2019년 통일부업무계획》이라는것을 발표한 남조선당국의 우유부단한 태도는 참으로 온 겨레를 실망케 하고있다.

남조선당국이 진정으로 북남관계의 지속적발전을 바란다면 이제라도 《2019년 통일부업무계획》과 같은 백해무익한 문서보따리를 쓰레기통에 처넣고 주견과 소신이 있게 처신하여야 한다. 바로 그것이 온 민족의 기대에 부응하는 길이라는것을 남조선당국은 명심하여야 한다.

본사기자 김철민

제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오늘 화해와 평화번영에 대한 겨레의 기대와 열망은 갈수록 높아가고있다.

겨레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민족의 화해단합과 평화번영을 이룩해나가자면 민족문제에 대한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고 모든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풀어나가려는 자세에 서야 한다.

외세는 우리 민족이 화해하고 북남관계가 발전하는것을 달가와하지 않는다. 이러한 외세에 의존하고 그를 민족문제해결에 끌어들인다면 외세의 리해관계가 작용하여 민족의 근본리익을 실현할수 없으며 민족적화해와 평화번영에 대한 겨레의 념원을 실현하는 길이 멀어지게 된다.

북과 남이 민족자주적립장에 서서 힘을 합친다면 제기되는 문제들을 겨레의 의사와 요구, 공동의 리익에 맞게 능히 순조롭게 해결할수 있게 될것이다.

지난해에 북남관계에서 이룩된 기적같은 성과들은 북과 남이 다같이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해결하려는 관점과 립장, 든든한 배짱과 자신심을 가질 때 그 어떤 난관도 타개해나갈수 있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북남관계문제, 통일문제해결의 주인은 우리 민족이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이룩해나가야 할 당사자도 북과 남이다.

민족화해와 평화번영에 대한 온 겨레의 지향과 요구가 그 어느때보다 높아가고있는 지금이야말로 조선민족의 일원으로서 자기 할바를 다해야 할 때이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남조선당국자들속에서 우리 민족의 지향과 시대적흐름에 배치되는 언행들이 튀여나와 겨레의 실망을 자아내고있다.

얼마전 미국과 진행한 《한미실무팀》회의에서 《대북제재를 유지》해나가기로 모의하였는가 하면 《국회》업무보고에서는 《대북제재의 틀내에서 남북협력사업들을 추진하겠다.》고 떠들어댔다.

남조선당국자들이 떠드는 《대북제재의 틀내에서의 남북협력사업》은 북남관계개선과 협력에 불필요한 외세의 개입만을 초래하게 될것이며 또한 그것은 북남합의의 근본정신에도 배치되는것이다.

남조선당국자들이 《중재자역할》, 《촉진자역할》을 떠드는것도 미국의 승인과 지시가 없으면 한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는 자기 처지도 의식하지 못하는 주제넘는 처사라고 해야 할것이다.

남조선당국자들은 남의 눈치를 볼것이 아니라 제정신을 가지고 동족과 함께 미국에 대고 요구할것은 요구하고 할 말은 해야 할것이다.

김청송

사대굴종의 《외교부업무계획》

얼마전 남조선외교부가 《2019년 외교부업무계획》이라는것을 발표하였다. 그 계획에 따르면 남조선의 외교부는 《한미공조》를 바탕으로 평화체제구축을 추진하며 북남교류협력문제는 시기가 성숙되는데 따라 제재의 틀속에서 미국과 협의해나갈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방위비분담금》증액을 둘러싼 미국과의 갈등문제해결을 위해 다음번 《방위비분담금》협정협상과 관련한 준비를 다그치는 등 남조선미국사이의 현안을 호혜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하였는가 하면 강제징용피해자배상판결 등 과거사를 둘러싼 일본과의 갈등문제해결을 위해 《력사문제해결과 미래지향적관계발전》을 병행추진하는 립장을 견지하겠다고 하면서 《주변국들과의 외교적갈등을 해소하는 문제》도 제기하였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의 언론, 전문가들은 이번 《외교부업무계획》을 《제 주장, 제 립장, 새것이 없는 계획》이라고 비난하며 그것을 철회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일반적으로 외교는 자주, 호상존중, 평등, 호혜의 원칙에 기초하여 진행된다.

그런데 이번에 남조선의 외교부가 내놓은 《2019년 외교부업무계획》에는 이러한 원칙들이 과연 반영되여있는가 하는것이다.

력대로 남조선외교당국이 미국과의 《공조》와 협조를 우선시하며 떠들어왔지만 그로 인해 차례진것이 무엇인가 하는것이다.

종속관계의 심화, 굴욕과 수치뿐이였다는것이 남조선의 외교사가 그대로 말해준다. 단적인 실례가 바로 남조선과 미국사이의 《방위비분담금》협상문제이다.

지난 2월 미국과 남조선은 지난해보다 8.2%나 늘어난 9억 1 800여만US$이상을 남조선강점 미군유지비로 섬겨바친다는것을 약속한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문》에 가서명하였다.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되지도 않아 《워싱톤 포스트》를 비롯한 미국의 주요언론들은 미국이 미군이 주둔하는 모든 나라와 지역들에 주둔비용의 50%를 추가로 부담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있으며 그 첫번째 적용대상이 남조선이 될것이라고 떠들었다. 이것이 현실로 되는 경우 남조선은 현재의 3배에 달하는 천문학적자금을 미군유지비로 섬겨바쳐야 한다고 한다.

이러한 단적인 실례는 미국이 남조선을 《혈맹》이나 《동맹》관계가 아니라 저들의 탐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탈대상, 세계제패야망실현의 침략적군사기지로밖에 여기지 않는다는것을 똑바로 보여주고있다.

남이야 죽든살든 관계없이 오직 저들의 리익만을 중시하며 우리 겨레가 바라는 북남관계개선에도 장애만 조성하고 사사건건 시비중상하고있는 미국이다. 이런 미국과의 《공조》로 남조선이 얻을것이 과연 무엇이겠는가.

일본과의 관계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지금 남조선외교당국이 강제징용피해자배상판결 등 과거사를 둘러싼 일본과의 갈등문제해결을 위해 《력사문제해결과 미래지향적관계발전》을 병행추진하겠다고 하는것은 그대로 우리 민족에 대한 모독이고 우롱이다.

일본으로 말하면 우리 민족에게 천추만대를 두고도 씻을수 없는 만고죄악을 저지른 천년숙적이다. 똑바른 과거청산이 없이는 손도 잡을수 없는 불구대천의 원쑤가 바로 일본이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일본은 과거죄악에 대한 충분한 사죄와 배상은 외면한채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해보겠다는 어리석은 망상밑에 군국주의부활을 다그치며 조선반도에 대한 재침의 기회만 엿보고있다.

과거문제에 대한 똑똑한 결산없이 《관계개선》을 운운하는것은 결국 일본의 과거죄악을 덮어버리고 침략의 칼을 가는 사무라이족속들을 조선반도에 끌어들이겠다는것외에 다른것이 아니다.

《2019년 외교부업무계획》이 외교의 초보적인 원칙도 결여된채 사대와 굴종으로 얼룩져있다는것은 더 말할 여지가 없다.

제힘을 믿지 않고 남을 쳐다보며 그 무엇을 바란다면 얻을것은 수치와 조소, 파멸뿐이다.

엄철범

적폐청산과 평화번영을 위한 투쟁에 적극 나설것을 결의

얼마전 남조선시민사회단체들이 적페청산과 조선반도평화번영을 위한 투쟁에 적극 나설것을 결의해나섰다.

남조선언론들의 보도에 의하면 지난 3월 12일 민중공동행동과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이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적페청산과 사회대개혁, 조선반도의 평화번영과 통일을 안아오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려나갈 굳은 의지를 밝히였다.

민주로총과 《한국진보련대》 등으로 구성된 민중공동행동은 오직 적페청산과 사회대개혁만이 초불민의실현의 열쇠라고 하면서 적페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위한 투쟁을 계속 벌려나갈 결의를 다지였다.

또한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은 기자회견에서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민족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계속하여 조선반도의 주인인 우리 손으로 평화번영과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고 하면서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에 밝혀진대로 북과 남이 힘을 합쳐 평화를 이루고 번영과 통일로 나아가야 한다고 호소하였다.

본사기자

남조선의 시민사회단체들

반역정당해체투쟁에 나설것을 호소

남조선인터네트신문 《통일뉴스》에 의하면 국민주권실현 적페청산 대전운동본부가 15일 《자유한국당》 대전시당건물앞에서 초불집회를 가지고 《자유한국당》의 해체를 주장하였다.

발언자들은 친일세력을 비호하고 애국세력을 《폭도》로 매도하는 《자유한국당》이야말로 심판대에 세워야 할자들이라고 말하였다.

박근혜가 탄핵되여 감옥에 처박혔음에도 불구하고 공범인 전 《국무총리》 황교안이 《자유한국당》의 대표로 들어앉았다고 그들은 단죄하였다.

이것은 《자유한국당》이 《도로박근혜당》, 적페정당이라는 증거라고 그들은 밝혔다.

그들은 각계각층이 단결하여 《자유한국당》의 해체를 위한 투쟁에 나서자고 호소하였다.

집회가 끝난 후 참가자들은 《적페정당, 도로박근혜당, 자유한국당 해체하라.》, 《5.18망언 민주주의부정 자유한국당 해체하라.》, 《평화시대 역행하는 자유한국당 해체하라.》는 등의 구호를 웨치며 거리를 행진하였다.

남조선인터네트신문 《자주시보》에 의하면 시민사회단체들이 16일 서울에서 집회를 가지고 《자유한국당》해체를 요구하였다.

발언자들은 《자유한국당》이 5.18광주민중항쟁의 정신을 외곡하고 반민중적인 행동을 일삼아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고있다고 말하였다.

특히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라경원은 미국과의 동맹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는 전쟁연습을 계속 해야 한다는 망발까지 줴쳐댔다고 그들은 비난하였다.

이것은 정세를 악화시켜 분렬을 영구화해보려는 발악적망동이라고 그들은 단죄하였다.

그들은 《자유한국당》을 해체시키고 적페청산을 위해 투쟁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대미추종이 초래할 후과

최근 미국과 남조선의 외교관계자들이 워싱톤에서 《한미실무팀》회의를 열고 《대조선정책공조방안》이라는것을 모의하였다.

간과할수 없는것은 미국과 남조선이 이번 회의에 《남북 및 북미관계의 현동향》, 《남북협력문제》등과 같은 문제들을 상정시키고 《공동의 목표달성》을 위해 《대북제재》를 계속 유지하기로 합의한것이다.

남조선당국이 북남협력사업과 관련한 《제재면제》를 요청한데 대해 미국은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화상상봉 및 영상편지교환에 필요한 장비들과 물자들의 반출만 승인해주고 다른 모든 북남경제협력문제들은 앞으로 계속 협의하자는 식으로 외면하였다.

결국 남조선당국은 《설득》과 《리해》를 추구하면서 요청보따리를 한가득 꾸려가지고 갔다가 《대북제재》에 대한 동참과 북남관계문제를 미국과 긴밀히 조률해나간다는 《약속》을 해준 대신 겨우 한가지만 허락받아가지고 초라한 꼴로 돌아왔다.

이미 알려진 일이지만 지난해말 《한미실무팀》이 생길 당시부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조직되는 《팀》을 미국이 남조선당국을 그러쥐기 위한 또 하나의 수단일뿐이라고 하였었다. 그것이 우연한 평이 아니였다는것은 이번 일만 놓고보아도 잘 알수 있다.

당시 미국무성 부대변인도 《한미실무팀》을 통해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미국의 간섭과 통제가 더욱 강화될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줴쳐댄바 있다.

지금까지 여러차례 진행된 《한미실무팀》회의들은 미국—남조선관계가 주종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음을 보여주고있다.

더우기 문제로 되는것은 남조선당국이 동족이고 력사적인 북남선언에 합의한 상대인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악랄한 제재압박책동에 추종하면서 계속 꼭두각시노릇을 하고있는것이다.

이것이 바로 《한미실무팀》의 실체이고 그를 통해 드러나는 미국—남조선관계의 실상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오죽하면 《한미실무팀》회의의제나 협의정형이 대외에 알려지는 문제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실상을 드러내지 않으려 하겠는가 하는것이다.

남조선당국은 민족적수치와 모멸감도 모르고 계속 미국에 비굴하게 추종한다면 북남관계의 파국과 각계층민심의 비난과 저주밖에 차례질것이 없다는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예속과 강박의 도구인 《한미실무팀》페기, 《한미동맹》해체투쟁으로 민족의 존엄을 지키고 불평등한 남조선—미국관계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유금주

변함없는 반공화국압살흉계

최근 남조선강점 미군이 부산항 8부두에서 생화학전계획을 계속 추진하고있다는것이 폭로되여 남조선인민들의 커다란 우려와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미군이 추진하고있는 이른바 《쥬피터계획》은 앞으로 조선반도유사시 공화국에 생화학무기들을 대량 사용하는것을 골자로 하는 극히 위험천만한 살인전쟁각본이다.

미국방성이 작성한 《2019회계년도 생화학방어프로그람예산평가서》에는 공화국을 겨냥한 생화학전계획인 《쥬피터계획》에 지난해보다 15.6%나 더 늘어난 1 014만US$의 예산을 증액하여 할당하였으며 그중 34.5%에 달하는 350만US$를 종합적인 생화학무기실험실과 관련장비들이 설치된 미군전용부두인 부산항 8부두에 지출하기로 하였다는것이 서술되여있다. 이 계획에는 생화학무기와 관련한 환경탐지평가, 조기경보, 생화학무기감시정형보고, 생화학무기식별실험과 살아있는 매개체실험을 진행하는것도 포함되여있다고 한다.

또다시 드러난 미국의 생화학전계획은 남조선을 하나의 거대한 생화학전시험장으로 만들고 우리 민족에게 무서운 재앙을 들씌우려는 치떨리는 반인륜적범죄행위이다.

미국이 전후 남조선강점미군기지들을 비롯하여 남조선도처에 각종 세균연구소들을 설치해놓고 생화학전준비책동에 광분하여온것은 공개된 사실이다.

1974년말부터 독해물인 《RH—787》을 《신종취약》이라는 상표를 달아 남조선에 끌어들여 무고한 주민들을 상대로 인체실험을 하면서 그 효률성을 측정하는 천인공노할 살인만행도 저질렀다.

지난 2015년 미국이 남조선의 오산미공군기지에서 《공포의 백색가루》, 《악마의 무기》로 불리우는 탄저균에 대한 실험을 감행하고 다음해에는 열대와 아열대지역에 있는 특정한 모기에 의해 전파되고 사람들의 생명에 치명적인 후과를 초래하는 지카비루스실험을 한 사실이 폭로된것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이처럼 미국의 범죄적인 생화학전책동에 의해 남조선은 오래전에 거대한 생화학무기고로 전변되였으며 남조선 각지에 널려있는 미군기지들에서는 생화학전실험이 끊임없이 벌어졌다.

인류를 수백번 멸살시키고도 남을 방대한 량의 핵무기를 비축해놓고도 모자라 생화학무기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면서 그것을 새로운 조선전쟁에 사용하려는 미국은 전쟁의 화근, 반인륜적범죄집단이다.

이러한 미국이 저들의 생화학전준비책동에 대해서는 아닌보살하면서 그 누구의 있지도 않는 생화학무기보유와 페기에 대해 떠드는것이야말로 파렴치의 극치가 아닐수 없다.

남조선당국은 우리 민족의 신성한 터전을 미국의 생화학전시험장으로, 남조선인민들을 상전의 생체실험대상으로 내맡기려는 저들의 사대매국행위에서 수치를 느껴야 한다.

얼마전 미국은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의 《종료》를 운운하면서 《동맹》이라는 새로운 명칭의 전쟁연습을 강행한데 이어 남조선에 공화국지역을 감시할 정찰기와 조기경보기를 끌어들이였다.

조선반도정세의 화해국면에도 불구하고 각종 형태의 북침전쟁연습을 강행하고 생화학전준비를 계속 다그치고있는것은 공화국을 힘으로 압살하려는 미국의 흉심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주광일

경제위기를 몰아온 장본인

남조선의 경제와 민생이 갈수록 악화되여 사람들의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자영업자를 비롯한 소상공인들이 줄줄이 파산하고 실업자가 나날이 늘어나는 속에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량극화도 심해지고있다.

그러한 속에 황교안, 라경원과 같은 《자유한국당》패거리들이 앞다투어 나서서 현 《정부》의 《경제적무능》과 《경제정책실패》에 대해 입에 게거품을 물고 헐뜯고있어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있다.

《자유한국당》나부랭이들은 입만 열면 《〈정부〉가 국민의 고통과 호소에 귀를 닫았다.》, 《좌파 〈정권〉이 경제를 벼랑끝으로 내몰고있다.》고 떠들면서 현 경제위기의 책임을 당국에 들씌우고있다.

과연 그들이 주장하듯이 남조선의 심각한 경제와 민생의 위기가 현 당국이 초래한것인가.

이에 대해 남조선의 경제전문가들과 언론들은 지금의 경제위기와 민생악화는 대외의존형 기존경제구조의 취약성이 낳은 필연적결과이며 리명박, 박근혜보수《정권》의 반인민적정책과 무능이 빚어낸 만성적인 악페의 후유증세라고 저마다 평하고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리명박, 박근혜가 권력의 자리에 올라앉기 위하여 《747공약》, 《경제살리기》, 《민생회복》과 같은 귀맛좋은 《공약》들을 줄줄이 내놓고 집권후에는 《경제부흥을 통해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열어나가겠다.》는 등으로 기염을 토하군 하였지만 남조선의 경제는 그야말로 파국의 진창에 계속 빠져들었다.

박근혜집권시기만 보더라도 천문학적액수의 《방위비분담금》증액과 미국산 중고무기구입을 강요하는 미국의 압박에 굽석거린 보수패당의 행위는 남조선경제와 인민들의 생활을 더 큰 파국에로 몰아넣었다. 더우기 보수패당의 친미적이고 반평화적인 《싸드》배치로 하여 남조선경제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며 설상가상으로 보호무역주의를 내들고있는 미국이 남조선미국《자유무역협정》의 재협상을 강박하고 경제의 불안정성을 고조시킨것으로 하여 무역수지가 걷잡을수 없이 악화되게 되였다.

남조선경제의 파탄은 당시 보수집권세력의 극악무도한 동족대결책동으로 하여 극도에 이르렀다.

사실이 보여주는것처럼 남조선경제의 파국은 과거 보수패당의 반역통치와 부패무능의 필연적결과이며 지난 보수집권세력의 반인민적경제정책의 파국적후과가 결국은 오늘까지 이어지고있는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패거리들이 오늘의 남조선경제위기와 민생악화에 대해 《비상상황》, 《참담하다.》고 떠들어대는것이야말로 철면피하기 짝이 없다.

지금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은 경제파탄의 장본인, 민생악화의 주범인 《자유한국당》이 도적이 매를 드는 격으로 뻔뻔스럽게 놀아대는데 대해 침을 뱉고있다.

리성일

다시 살아나 날뛰는 적폐무리들

남조선에서 민심의 버림을 받고 만신창이 되여있던 적페세력들이 허울을 벗은 독사처럼 목을 쳐들고 독기를 뿜어대고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자유한국당》것들은 현 《정권》을 《좌파독재정권》, 《친북파쑈정권》, 현 집권자를 《북의 수석대변인》으로 몰아대는 극우보수적망동을 부리고있다.

당대표자리를 차지하고있는 황교안과 원내대표 라경원을 비롯한 《자유한국당》패거리들은 련일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은 진실과 거짓을 구별 못하는 위험한 도박이다.》, 《성급한 대북유화정책으로 얻은것은 합동군사연습중단뿐이다.》, 《〈운동권정부〉가 국민들을 반미, 반일로 이끌고있다.》고 고아대면서 현《정권》을 마구 공격해나서고있다.

그런가 하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하여 여야4당이 합의한 《선거법개정안》에 대해 《좌파련립정부수립계획》이라고 비난하면서 《좌파독재정권》의 수명연장을 위한 《립법쿠데타》라고 고아대고있다.

한편 당안에 《좌파독재저지특별위원회》라는것까지 조작하고 분야별 《좌파독재형태》를 담은 《백서》를 발간한다, 《규탄대회》를 개최한다 어쩐다 하며 분주탕을 피워대고있다.

《자유한국당》이 박근혜역적당으로서의 극우보수적본색을 날날이 드러내놓은것이다.

지난 리명박, 박근혜보수《정권》시기 사대매국과 동족대결에 환장한 보수패당의 망동으로 북남관계가 최악의 상태에 처하고 남조선사회가 파쑈독재의 암흑천지로 전락되였었다는것은 너무나도 잘 알려져있다.

끝내는 초불항쟁의 거세찬 불길속에 타죽을번했던 보수패당이 당의 간판을 바꾸어 달고 그 무슨 《쇄신》과 《변화》에 대해 떠들지 않으면 안되였다.

이런 죄많은 《자유한국당》이 현《정부》를 《종북좌파정권》으로 몰아대며 케케묵은 《색갈공세》에 매달리고있는것은 《도로박근혜당》의 본색을 드러낸 히스테리적광기가 아닐수 없는것이다.

결국 이것은 의로운 초불항쟁세력모두를 《종북좌파세력》으로 몰아대는 범죄적망동으로서 북남관계를 극도의 대결과 전쟁위험만이 조성되였던 리명박, 박근혜《정권》시기로 되돌리려는 대결광란의 극치이다.

《자유한국당》이 여야4당의 선거제도개편안에 결사반대해나서고있는것도 마찬가지이다. 여기에는 시대밖으로 밀려난 보수세력을 부활시켜 어떻게 하나 재집권의 야망을 실현해보려는 추악한 속심이 깔려있다.

이처럼 력사의 흐름을 사대매국과 동족대결, 파쑈독재의 과거에로 되돌리려는 《자유한국당》패거리들의 발악적망동은 극도에 이르고있으며 그로 말미암아 지금 남조선사회는 다 죽어가던 적페의 오물들이 다시 살아나 갖은 독설을 내뱉으며 망동을 부리는 험악한 판으로 전락되고있다.

《자유한국당》패거리들이 하늘 무서운줄 모르고 제세상처럼 날뛰고있는것은 진보개혁을 지향하는 초불민심에 대한 전면도전이며 력사의 흐름을 과거에로 되돌려보려는 시대착오적인 망동이다.

남조선 각계층속에서 련일 《〈자유한국당〉의 행태가 도를 넘어섰다.》, 《〈자유한국당〉이 있는 한 적페청산과 사회대개혁은 실현될수 없다.》는 항의와 규탄의 목소리들이 터져나오고있는 가운데 얼마전 민중공동행동, 사법적페청산 범국민시대련대를 비롯한 투쟁단체들이 박근혜탄핵 2년을 기념하는 초불집회를 열고 여러 지역들에서도 각계층이 《도로친박근혜당을 소탕하자!》, 《친일잔당을 처벌하자!》 등의 구호를 웨치면서 범국민투쟁을 벌릴것을 결의해나선것은 당연하다.

현실은 보수세력결집과 재집권야망을 실현해보려고 미친개처럼 날치는 이런 역적무리들을 그대로 둔다면 남조선에 또다시 파쑈와 독재의 암흑기가 도래하게 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적페의 본산이며 사회적진보와 정의의 흉악한 파괴자인 《자유한국당》을 완전히 매장해버려야 남조선인민들이 피흘려 쟁취한 전취물들도 진정 빛을 보게 될것이다.

고영수

주체교육사의 갈피에 새겨진 법령들

조국의 부강발전과 후대교육을 위하여 독창적인 교육사상과 리론을 내놓으시고 빛나게 구현해오신 절세위인들의 헌신과 로고의 자욱자욱은 공화국의 사회주의교육제도를 굳건히 다지기 위해 채택된 법령들에도 뜨겁게 어려있다.

일제의 악독한 식민지노예교육정책의 후과로 하여 해방후 공화국북반부에는 단 하나의 대학도 없었고 중학교라고는 얼마 되지 않는 초등학교졸업생의 2%도 수용할수 없는 정도의 개수가 있었을뿐이다. 그리하여 어린이들의 대다수가 학교에 다닐수 없었으며 성인문맹자의 수는 수백만명에 달하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새 사회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교육사업이 가지는 의의를 깊이 통찰하시고 일제의 식민지노예교육제도를 철폐하고 인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교육제도를 창설할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시였으며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공화국에서는 민주주의교육제도를 세우기 위한 첫 사업으로서 새형의 인민적교육기관을 창설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졌다.

먼저 일제와 그 주구들이 운영하던 학교들을 인민위원회의 관할밑에 넣고 유일적으로 장악지도하는것과 함께 일제와 그 주구단체들의 공공기관들을 학교로 꾸리고 파괴된 학교들을 복구정비하는 사업이 적극 벌어지게 되였다. 또한 지방인민위원회의 지도밑에 패망한 일제잔당들과 반동주구들의 악랄한 파괴책동으로부터 교육기관들을 보위하기 위한 투쟁에 각지 인민들과 애국적인 교원, 학생들이 적극 떨쳐나섰다.

그리하여 오랜 기간 일제의 식민지노예교육에 복무하여온 반동적인 낡은 교육기관들은 철폐되고 인민주권이 관할하는 새로운 인민적교육기관들이 출현하게 되였다.

주체35(1946)년 8월 중요산업국유화법령이 공포됨으로써 일제와 그 주구들의 교육기관을 국가와 인민의 소유로 넘기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된 성과가 법적으로 확고히 고착되게 되였다.

학교건설과 교원문제가 점차적으로 해결되는데 따라 공화국에서는 전반적초등의무교육제의 실시를 위한 준비가 전국가적, 전인민적사업으로 힘있게 추진되였다.

그리하여 해방후 나라의 교육사업과 초등의무교육제실시를 위한 준비사업에서 이룩된 성과에 토대하여 1949년 9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기 제4차회의에서는 력사적인 《전반적초등의무교육제실시에 관한 법령》이 공포되였다.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 법령을 집행하기 위한 사업은 지연되게 되였다. 전후 교육사업을 복구발전시키는데서 전반적초등의무교육제를 실시하는것을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우신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공화국에서는 1956년 8월부터 전반적초등의무교육제가 성과적으로 실시되게 되였다.

1958년 10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2기 제4차회의에서 채택된 법령 《전반적중등의무교육제를 실시하며 기술의무교육제실시를 준비할데 관하여》, 1966년 11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3기 제6차회의에서 채택된 전반적9년제기술의무교육을 실시할데 대한 법령.

이 법령들은 나라의 정세가 긴장하고 국가의 부담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후대들을 위한 일은 절대로 미룰수 없다는 투철한 관점으로 나라의 교육사업을 현명하게 이끌어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열화같은 후대관, 교육관을 가슴뜨겁게 전하여주고있다.

1973년 4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2차회의에서 법령 《전반적10년제고중의무교육과 1년제학교전의무교육을 실시할데 대하여》를 공포한것은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실시를 위한 준비를 전국가적, 전인민적사업으로 전환하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1975년 4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5차회의에서는 그해 9월 1일부터 나라의 모든 지역에서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할데 대한 결정을 공포하였다.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의 완전한 실시로 공화국의 사회주의교육제도의 우월성이 뚜렷이 과시되였다.

2012년 9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6차회의에서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한 법령이 발표된것은 공화국의 교육중시사상이 구현되여있는 중대한 조치였다.

참으로 가장 인민적인 공화국의 사회주의교육제도는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조국관, 인민관, 후대관이 안아온 자랑찬 결실이다.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주체교육발전을 위한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현명하게 이끌어주신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이 있어 공화국의 사회주의교육제도는 굳건하며 그 미래도 창창하다는것을 주체교육사의 갈피에 새겨진 법령들을 통하여 누구나 가슴깊이 새기게 된다.

량명철

날로 활발해지는 전자상업봉사

공화국에서 국가콤퓨터망과 이동통신망을 리용하여 상업의 정보화를 적극 추진하고있다.

전자상업봉사를 통하여 사람들은 공장, 기업소, 상업 및 급양봉사기관들에 대한 정보와 함께 해당 단위들에서 생산되고있는 제품들을 사진과 동화상을 통하여 실감있게 볼수 있다. 생산단위들에서도 자기들이 생산한 제품들을 전자상업홈페지에 올려 알려주고 전자상업망을 통해 상품판매를 실현할수 있어 좋은 점이 많다.

그가운데는 연풍상업정보기술사에서 관리운영하고있는 전자상업홈페지 《만물상》도 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각종 제품들과 상업봉사망들에서 판매되는 여러가지 상품들에 대한 자료와 경제관련지식들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이 홈페지는 개설된지 몇해밖에 안되지만 이미 사람들의 생활의 한부분으로 되였다.

전자상점, 경제정보, 기업소개, 상품올리기, 편의봉사 등 여러가지 목록으로 분류되여있는 전자상업홈페지 《만물상》에서 열람자들은 구입하려는 상품들에 대한 가격과 판매기관들의 명칭, 련계할 전화번호, 위치 등을 구체적으로 알수 있으며 경제정보목록을 통하여 최근 국제, 국내 경제관련소식들과 상식들을 열람할수 있다.

2017년 10대최우수정보기술기업으로 선정된 연풍상업정보기술사는 전자상업에 대한 개발과 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관록있는 기관이다.

전자상업봉사체계 《옥류》도 콤퓨터망과 손전화기를 리용하여 상품소개와 판매, 상업정보소개를 진행하는 전자결제방식의 상업봉사체계로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있다.

사람들이 콤퓨터망이나 손전화기로 요구하는 상품을 검색하고 구입하는 이 전자상업봉사체계는 평양시내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하는 인기제품목록과 함께 상점, 식당들의 상품과 갖가지 료리목록들 그리고 지방상점들에 있는 상품들에 대한 자료들도 상세히 알려주고있다.

이 봉사체계로 사람들은 해당 단위들과 련계하여 구입하려는 상품에 대하여 통보하고 필요에 따라 상품송달을 요구하기도 한다.

전자상업봉사체계 《옥류》로 상점에 가지 않고도 집에 앉아서 콤퓨터망이나 손전화기를 리용하여 각 상점들에서 판매하는 상품들을 검색하고 구입할수 있는것으로 하여 날이 갈수록 가입자들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있다.

본사기자 강류성

《만물상》전자상업홈페지

동포자녀들을 어엿한 민족인재로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의 일군들과 교육자들이 민족교육사업에서 주체를 세우고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교육내용과 방법을 개선하여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과시하기 위한 사업에 지혜와 열정을 쏟아붓고있다.

학생인입사업에 힘을 넣어

일본에서 민족동화책동이 의연히 우심한 지금 보다 많은 재일동포자녀들을 조선학교에 받아들여 그들을 어엿한 민족인재로 키우는것은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가나가와현의 총련 및 청상회조직에서는 학령전어린이들과 그 부모들을 위한 다채로운 모임을 자주 조직하고있는데 그것은 학생인입사업의 첫 단계라고 말할수 있다. 조선학교에서 배우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여러가지 편집물상영과 어린이들의 심리적특성에 맞는 다양한 형식의 놀이들, 우리의 노래와 춤으로 흥성이는 마당에서 참가자들은 민족의 넋을 깊이 새겨안고있다. 동포수가 적은 지역에 시집와서 일종의 외로움을 느끼고있던 한 동포녀성은 이런 모임에 참가하면서부터 생활에 생기가 넘치기 시작하였다고 하면서 아이가 크면 꼭 조선학교에 보내겠다고 말하였다.

총련 도꾜조선제1초중급학교에서도 학령전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모임들을 자주 조직하여 학생인입사업의 토대를 튼튼히 다지고있다. 최근에 진행된 모임에도 백수십명의 어린이들이 참가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였다. 학교의 교직원들과 학부형, 재학생들은 누구나 민족교육의 우월성을 실감할수 있게 하는 공개수업과 다채로운 공연을 준비하여 모임의 성과적보장에 이바지하였다.

이처럼 각지 총련일군들과 교육자들은 시대앞에 지닌 숭고한 사명감을 깊이 자각하고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민족의 어엿한 아들딸들로 키우기 위한 사업을 적극 벌려나가고있다.

깊은 감명을 안겨준 상봉모임

지난해 총련 도꾜조선중고급학교 학생들은 조국방문기간 류다른 상봉모임을 가지였다. 상봉대상은 조국에 귀국한 후 고마운 사회주의제도의 품속에서 원사, 교수, 박사로, 공훈예술가로 성장한 자기 학교의 6기, 7기 졸업생들이였다.

수많은 과학기술적성과를 이룩하여 여러차례나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을 드린 로과학자와 해내외에서 주체예술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과시하는데 이바지한 옛 예술인.

학생들은 조국의 빛나는 력사에 값높은 인생의 자욱을 남긴 선배들을 선망의 눈길로 바라보았다.

상봉모임에서 출연자들은 조국의 품속에서 자기들이 받아안은 사랑과 은정, 그에 보답하기 위해 애써온 애국충정의 나날에 대하여 감명깊게 이야기하였다. 조국의 품에 안기지 못했더라면 이처럼 복받은 삶을 누릴수 있었겠는가 하는 그들의 격정에 젖은 목소리는 학생들의 심금을 세차게 울리였다.

조국의 품속에서 행복과 영광을 누려온 선배들은 모교의 후배들에게 총련민족교육의 화원이 어떻게 마련되였으며 재일동포들의 민족적존엄과 권리가 어떻게 고수되여왔는가를 잘 알고 애국위업의 훌륭한 역군으로 자라나라고 열렬히 호소하였다.

상봉모임의 실효는 매우 컸다. 학생들은 조국에서 활약하는 졸업생들과의 상봉을 통해 많은것을 느꼈다고 하면서 그들처럼 조국과 민족의 영예를 떨쳐나갈것을 굳게 다짐하였다.

본사기자

자력갱생의 정신이 투철한 나라

— 외 국 인 들 의 목 소 리 —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힘차게 전진하는 공화국의 드높은 기상과 발전잠재력에 세계가 경탄을 금치 못하고있다.

공화국인민들의 투쟁모습을 제 눈으로 직접 목격한 방글라데슈주체사상연구소대표단 단장 가리브 네와즈는 《조선은 자력자강으로 모든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고있다. 지금 적지 않은 나라들이 남의 도움에 의한 경제발전을 기대하고있는데 자기의것이 없는 경제는 한갖 허울에 불과하다. 이 세상에서 자력갱생으로 모든것을 창조해나가며 그 어떤 풍파에도 끄떡없이 승승장구해나가는 나라는 오직 사회주의조선밖에 없다. 그 어떤 제재와 봉쇄도 조선인민의 앞길을 절대로 막지 못한다. 조선이야말로 불패의 힘을 가진 위대한 나라, 전도가 양양한 강국이다.》고 자기의 격동된 심정을 토로하였다.

타이주체사상연구조직 위원장은 《백절불굴의 정신력을 지닌 조선인민은 자체의 힘과 기술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며 자기 조국을 그 누구도 무시할수 없는 불패의 사회주의보루로 강화발전시켰다. 필승의 신심에 넘쳐 자기가 선택한 길을 따라 굴함없이 나아가는 조선인민에게는 점령 못할 요새, 불가능이란 있을수 없다. 존경하는 김정은각하의 령도밑에 조선인민은 세계가 보란듯이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울것이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목소리는 세계 많은 나라들의 출판물들에서도 울려나오고있다.

《조선이야말로 자력갱생의 정신이 투철한 나라이다.》

《조선인민은 외부의 압력이 우심해지고 조건이 어려울수록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정신을 더 높이 발휘하는 신념의 강자들이다.》

《조선인민은 고난속에서도 생활을 창조해나가며 주체의 정신, 자력갱생의 힘으로 시련과 난관을 뚫고 전진하고있다.》

《자기 나라의 자원과 기술, 자체의 힘과 지혜로 경제와 문화, 국방을 발전시키려는 조선인민의 의지를 절대로 꺾을수 없다.》

《조선의 자강력은 조선인민이 력사의 온갖 풍파를 이겨내며 승리의 한길로 전진하게 하는 백승의 보검이다.》

본사기자

▶▶▶《통일신보》가 만난 사람들◀◀◀

인재육성에 애국의 열정 바쳐가는 교육자

오늘의 지식경제시대는 인재중시의 시대이다. 실력있는 쟁쟁한 인재가 많으면 나라가 흥하고 강해진다.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인재는 교육을 통해 육성된다.

공화국에는 학생들을 다방면적이고 알찬 지식을 소유한 앞날의 훌륭한 인재로 키워가고있는 참된 교육자들이 많다. 그들중에는 리현 서성구역 와산고급중학교 교장도 있다.

새 교수방법들을 창조도입하여

새 세기 교육혁명의 불길속에 자체의 힘으로 현대교육기술을 창조도입하여 첨단수준의 교육을 실현할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고 교육조건과 환경개선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둔 와산고급중학교를 찾았을 때 체소하고 단아한 중년녀성이 미소를 머금고 우리를 맞이했다. 리현(52살)교장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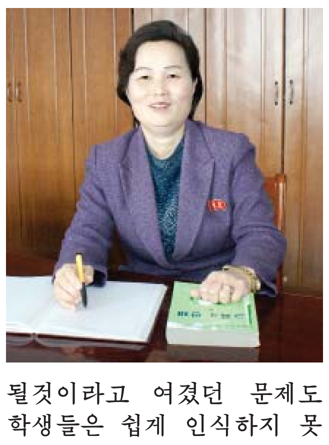
깨끗한 량심과 헌신, 창조적안목으로 후대교육사업에 한생을 바쳐가고있는 리현교장의 모습은 이 땅의 교육자들의 삶이 무엇으로 하여 빛나고 아름다운가를 되새기게 하였다. 그와 함께 교육의 과학화, 정보화, 현대화실현에서 본보기로 되고있는 학교의 여러곳을 돌아보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 지금까지 새 교수방법들을 많이 내놓았는데 세계적인 교육발전추세와 교육학적요구에 맞게 교수방법을 혁신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여러 측면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지식탐구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를 적극 불러일으키고 교수과정을 부단한 착상과 발견과정으로 되게 하여 학생들의 창조적사고력을 최대한 계발시키는것, 이것이 기본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하며 리현교장은 새 교수방법들을 탐구하기 위해 애쓰던 나날들을 더듬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평양서성제1중학교(당시)에서 교편을 잡았을 때만 해도 훌륭한 교원이 되려는 포부에 넘쳐있던 그였다. 허나 일은 욕망대로 되지 않았다. 수업시간에 자기에게는 명백해보이는 문제도, 이쯤 설명하면 리해



될것이라고 여겼던 문제도 학생들은 쉽게 인식하지 못하였던것이다.

물리수업을 할 때 있은 일이다. 압력이 일정한 조건에서 기체의 온도가 높아지면 체적이 불어난다는 등압법칙에 대한 수업이였다. 수업시간에 등압법칙에 대해 자신있게 설명하였는데 학생들의 눈빛을 보니 잘 리해되지 않는것 같았다.

그날 그는 밤늦도록 분과실을 떠날줄 몰랐다. 수업을 잘하지 못했다는 량심의 가책에서였다.

학생들에게 생기는 지식의 공백을 교원자신의 삶의 공백으로 여기며 그후 그는 45분수업을 위해 교재연구와 여러차례 해보기수업을 하기도 하면서 학생들의 심리에 맞는 새 교수방법을 찾기 위해 애썼다.

그러던 어느날 그는 인공신경지능망에 대한 흥미있는 자료를 보게 되였다. 사람뇌수의 사고과정을 모형화한 인공신경지능망에 대해 파악하면 학생들의 사고과정을 과학적으로 알수 있었다.

인공신경지능망을 파악하여 학생들의 수업에 적용하리라 결심을 품은 그는 스스로 어려운 연구를 맡아나섰다. 수업과 과외학습지도, 교수준비를 하는 바쁜 속에서도 피타는 탐구와 노력을 기울여 그는 끝내 연구에서 성공할수 있었다.

그가 인공신경지능망을 연구한데 의하면 수업시간에 학생들의 사고를 련관성있게 계발시키는것이 중요했다. 인간의 사고활동은 뇌수의 신경망들사이의 호상작용속에서 진행되는데 될수록 많은 신경망들이 참가할수록 더 고급한 사고를 할수 있는것이다. 하여 그는 지난 시기 물리법칙을 배워줄 때 실험을 하고 수식으로 법칙을 이끌어내던것을 실험을 한후 여러 지식들과의 련관속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법칙을 리해하도록 이끌었다. 열기띤 론쟁속에 흐르는 수업과정에 학생들은 아무리 복잡한 지식도 쉽게 터득하군 하였다.

이렇듯 수업에 인공신경지능망이라는 첨단과학을 적용한 연구성과는 가치가 큰것으로 평가되여 그는 물리학석사학위를 수여받았다.

학생들의 지적능력, 응용능력, 창조적능력을 높여주는 새 교수방법에 대한 그의 지칠줄 모르는 사색과 탐구는 계속되였다.

3년전 그가 와산고급중학교에 교장으로 배치되여왔을 때 학생들의 학과실력은 그리 높지 못하였다.

료해해보니 일부 교원들속에서 주입식교육에 매달려 깨우쳐주는 교수방법을 구현하지 못하고있는데 원인이 있었다.

리현교장은 대담하게 교수방법을 혁신할 결심을 내리였다. 즉 수업시간에 학생들이 주동적인 탐구자가 되고 교원은 학생들의 탐구활동의 안내자, 조정자가 되도록 45분수업의 구조와 방법을 혁신하는것이였다.

45분수업을 학생들의 사고발전의 특성에 맞게 나누고 수업과정에 활발한 토론과 론쟁을 통하여 학생들이 주동적으로 사고하고 창조적으로 배우도록 하니 학과성적이 눈에 띄게 높아졌다.

이에 그치지 않고 물리, 화학, 생물 등 여러 실험실들을 교육학적요구에 맞게 새로 꾸리고 학교복도와 홀들에 흥미있는 상식들과 직관물들을 게시하여 학생들의 지식을 끊임없이 풍부히 해나갔다.

그리고 학생원격시험프로그람을 자체로 개발하여 학생들의 학기말, 학년말시험과 학과경연을 성과적으로 진행하고있으며 이 프로그람을 리용하여 수업시간에 학생들호상간 토론과 론쟁도 밀도높이 진행하여 학과성적을 높이는데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억센 뿌리에서 거목이 자란다.

답습과 모방이 아니라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안목으로 새 교수방법탐구에 바쳐온 무수한 날과 달들은 그대로 인재육성의 뿌리가 되여 놀라운 성과를 안아왔다. 학교는 점차 구역을 벗어나 시적으로 실력이 높은 학교의 대렬에 당당히 들어설수 있게 되였다.

떠밀어주고 이끌어주어

자기의 힘을 믿고 교육조건과 환경개선에서 남을 따라갈것이 아니라 단번에 뛰여넘어야 한다. 이것은 리현교장의 사업 전과정에 흐르는 일관한 원칙이다.

지난해 학교에서 가상현실기술과 증강현실기술에 필요한 현대교육설비들을 자체로 만들려고 달라붙었을 때 난관이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물론 전문기관들에 맡기면 쉽게 해결할수도 있었다. 하지만 눈앞의 성과만을 바라고 남을 쳐다본다면 언제 가도 학교는 자체의 힘을 키울수 없었다.

리현교장은 능력있는 교원들로 개발집단을 무었다. 그리고 개발집단의 힘과 지혜를 불러일으켜 전자칠판으로 쓰면서도 리용면적을 3배로 늘일수 있는 접이식칠판과 물체를 립체3차원적으로 보여줄수 있는 투영막, 편광판, 열차폐장치, 편광안경 등을 흔한 자재들로 만들어냈다. 그리고 현대교육설비들에 리용되는 프로그람도 학교자체의 힘으로 개발하여 학생들에게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생동하게 체험시킬수 있는 과학기술적토대를 그쯘히 갖추어놓았다.

학교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감탄을 금치 못하는 수영장도 일욕심많은 리현교장과 교직원들의 단합된 힘에 의하여 멋들어지게 일떠선것이다. 학교수영장을 개건하는 문제가 제기되였을 때 꾸리기사업을 자체로 해온 교원들도 그 일만은 어렵다며 주저하였다.

하지만 우리 학생들을 세상에 부러운것없이 내세우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을 교정에 현실로 꽃피우자는 교장의 절절한 호소는 그들의 심장을 울리였다.

맞들이로 파낸 흙을 나르며 밤낮이 따로없이 구슬땀을 흘려온 그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구입을 위해 가정살림에 쓰려던것도 아낌없이 내놓았다. 다른 교원들도 자기들의 진정을 바치였다. 하여 수영장개건은 제정된 기일에 성과적으로 끝났다.

그뿐이 아니다. 한개 학교의 교장이기 전에 다심한 인정미를 지닌 그를 교원들 누구나 존경하며 따른다.

우리와 만난 학교의 함명옥교원은 《우리 교장선생님은 어려서 부모를 잃은 나에게 친혈육의 정을 부어주고 헛디딜세라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었다.》고 하면서 자식이 잘되기를 바라는 친부모의 심정으로 자기에게 일생의 길동무도 소개해주고 성의껏 마련한 결혼식상도 차려준데 대해 들려주었다. 하기에 뜻깊은 결혼식날 함명옥교원은 신랑, 신부의 고마움이 비낀 술잔을 그에게 권하며 《어머니…》하고 목메여 불렀다고 한다.

어느해인가 학교의 송경옥교원의 남편이 급병으로 쓰러졌을 때 귀한 약재를 구해가지고 하루가 멀다하게 찾아가 병을 털고 일어나도록 온갖 성의를 다한 리현교장, 자기의 마음이 나약해질세라, 남에게 뒤질세라 떠밀어주고 이끌어주어 10월8일모범교수자로 내세워준 교장선생님을 잊지 못한다며 송경옥교원은 말하였다.

무슨 일에서나 기발이 되여 앞장서는 리현교장의 일본새를 말해주는 이야기들가운데는 그가 여러건의 새 교수방법과 교편물을 창안제작한 사실도 있고 누구보다 바쁜 속에서도 중등일반교육과 수재교육과정안의 교재들과 참고서들을 독파하며 실력을 튼튼히 다진 사실도 있다. 그의 뒤를 따라 많은 교원들이 자질향상과 새 교수방법창조에 떨쳐나 새 교수방법등록증, 실험기구 및 교편물창안증, 창의고안증서를 받았다.

지난해 1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평양교원대학을 현지지도하신 소식에 접한 리현교장은 그곳을 찾아 뜻깊은 현지지도로정을 따라 걸으며 그이의 마음속에 조국의 미래를 가꾸는 교원들이 얼마나 큰 자리를 차지하고있는가를 뜨거운 격정속에 새겨안았다.

수십년세월 모든것을 바쳐 뛰여난 재능과 애국의 마음을 겸비한 미더운 기둥감들을 수많이 키워낸 그의 삶을 나라에서는 시대의 위훈자들의 앞장에 내세워주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존함이 새겨진 사랑의 금반지를 받고 영광의 대회들에 참가하였으며 사회주의애국공로자의 값높은 영예를 지닌 리현교장이다.

그는 말한다.

《새 세기 교육혁명의 불길높이 교육사업을 우리 식으로 혁신하고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비약시키자면 아직도 할 일이 많다. 모든 학생들을 나라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세계적인 발명가, 인재들로 훌륭히 키워 인재강국의 기초를 다지는데 적극 이바지해나가겠다.》

본사기자 홍범식

대중체육활동의 생활력을 과시

지난 2월 평양에서는 제24차 백두산상 중앙기관일군체육경기대회가 진행되였다.

백두산상 중앙기관일군체육경기대회가 처음으로 진행된 때로부터 스물네번째의 년륜을 새긴 이번 경기대회는 위원회, 성, 중앙기관일군들이 대중체육활동을 힘있게 벌리는 과정에 련마한 체육기술과 집단의 단결력을 남김없이 과시한것으로 하여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4개 조로 나뉘여 승자전의 방법으로 진행된 경기대회에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바줄당기기를 비롯하여 태권도, 남자롱구, 녀자배구경기와 함께 바드민톤 등의 경기가 진행되였다.

이번 경기대회에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킨것은 **김일성**경기장에서 진행된 400m장애물극복이어달리기경기였다. 이 경기에서는 전력공업성, 무역은행, 대성지도국, 과학기술전당팀이 매조에서 각각 1등의 자리를 차지하였다.

또한 개인틀, 단체틀, 특기, 위력종목으로 나뉘여 진행된 태권도경기에 참가한 선수들은 평시에 련마한 태권도기술을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특기경기와 위력경기에 참가한 선수들은 높은 기술을 보여줌으로써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남자개인위력경기에 출전한 국가계획위원회팀 선수는 다른 선수들보다 더 많은 송판을 가볍게 격파한것으로 하여 전문가들과 애호가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번 경기대회에서는 또한 롱구경기가 인기를 모았다. 특히 전력공업성, 인민봉사총국, 묘향지도국, 의학연구원팀들은 재치있는 공몰기와 속공, 먼거리던져넣기를 잘 배합하여 남자롱구경기에서 1등의 영예를 지니였다.

1조에 속한 륙해운성팀과 채취공업성팀사이에 진행된 녀자배구결승경기는 손에 땀을 쥐게 하였다. 1회전경기에서는 륙해운성팀이, 2회전경기에서는 채취공업성팀이 이겼다. 치렬하게 벌어진 3회전에서 륙해운성팀 선수들은 높은 기술과 완강한 의지력을 발휘하여 채취공업성팀을 이김으로써 우승의 영예를 지니였다.

근 100여개단위에서 선발된 수백명의 중앙기관 일군들이 선수로 참가한 윷놀이경기도 우수한 우리의 민속전통을 빛내이며 성황리에 진행되였다.

제24차 백두산상 중앙기관일군체육경기대회는 대중체육활동을 통하여 단련되고 건강한 몸으로 맡은 사업에서 더 큰 성과를 이룩해나가려는 일군들의 열의와 신심넘친 모습을 잘 보여주었다.

본사기자 김 영 춘

2018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0대최우수태권도선수 (2)

3. 자강도태권도선수단 선수 김남수

김남수선수는 지난해에 국제국내경기들에서 이룩한 성과로 하여 2016년에 이어 두번째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0대최우수태권도선수로 선정되였다.

태권도에 대한 남다른 사랑을 지니고 꾸준한 훈련으로 기술을 높여온 그는 경기정황에 대한 예리한 판단과 상대방에 대한 불의적인 역습, 날카로운 공격으로 주도세밀하게 경기를 운영할줄 아는 기질을 소유하고있다.

제8차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4개와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쟁취하는것으로 첫 선을 보인 그는 제20차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 남자개인틀경기에서 금메달을 획득하였다.

지난해에 그는 제9차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 남자개인 4단틀경기와 단체틀경기에서 우승한데 이어 남자개인맞서기 85kg급과 단체맞서기 등에서 맞다든 선수들을 물리치고 아시아태권도강자의 영예를 지니였다. 그리고 남자단체특기와 단체위력경기에 참가하여 각각 은메달을 받았다.

그는 지난해 전승컵전국태권도강자경기대회에서 금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쟁취하였다.

4. 남포시태권도선수단 공훈체육인 함수경

지난해 국제국내경기들에서 훌륭한 경기모습을 보여준 함수경선수는 2016년과 2017년에 이어 세번째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0대최우수태권도선수로 선정되였다.

태권도모국의 존엄과 영예를 빛내이는데 크게 기여하고있는 그는 국제경기경험이 풍부하고 로련한 선수이다.

2012년 처음으로 제10차 청소년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에 참가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그는 여러 국제국내경기들에서 수십여개의 메달을 쟁취하였다.

그는 제20차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에서 눈부신 활약을 하고 공훈체육인의 영예를 지니였다.

지난해 제9차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 그는 출전한 모든 세부종목경기들에서 우승하여 조선민족의 슬기와 기상을 과시하였다. 이 대회에서 그는 태권도틀, 맞서기, 위력, 특기 등 여러 세부종목경기들에 출전하여 6개의 금메달을 쟁취하였다. 특히 녀자개인맞서기 72kg급경기에서 그는 자기의 높은 육체기술적능력을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그는 평시에 련마한 높은 태권도기술로 결승경기에서 상대방선수를 이기고 우승의 시상대에 올랐다.

본사기자 현 은 경

제 12 차 이젭스크국제교예축전에서

조선의 체력교예에 금상 수여

제12차 이젭스크국제교예축전이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로씨야의 우드무르찌야공화국 이젭스크시에서 진행되였다.

축전에는 조선, 로씨야, 중국, 뽈스까, 에스빠냐, 메히꼬를 비롯한 15개 나라의 우수한 200여명의 교예배우들이 참가하였다.

조선교예배우들은 용감성과 대담성, 희열과 랑만이 차넘치는 작품으로 공중무대를 장식함으로써 높은 경지에 이른 주체교예예술의 발전면모를 잘 보여주었다.

심사성원들과 축전참가자들, 관중들은 조선배우들이 난도높은 기교동작들을 손색없이 수행할 때마다 열렬한 환호와 박수갈채를 보내였다.

시상식에서는 조선체력교예 《비행가들》에 축전의 최고상인 금상이 수여되였다.

본사기자

민족음식

국 수

국수는 예로부터 우리 민족의 식생활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해왔다.

흔히 잔치를 하자는 뜻으로 국수를 먹자는 말을 쓰고있는데 이것은 잔치상에 반드시 국수를 곁들이는 관습에서 생겨난 말이다.

국수는 낟알가루를 반죽하여 분틀로 뽑거나 가늘게 썰어 끓는 물에 삶아 물에 말거나 꾸미를 놓아먹는 음식이다.

15세기 편찬된 《룡비어천가》에는 손님에게 국수를 대접하였다는 대목이 있으며 19세기초의 《해동역사》에는 고려때 나라안에서 밀이 얼마 나지 않아 국수값이 비싸다는 서술이 있다. 이것은 이 시기 국수가 널리 퍼져있었다는것을 보여준다.

국수는 기본재료에 따라 메밀국수, 밀국수, 농마국수, 강냉이국수 등이 있었다. 만드는 방법에 따라 랭면, 온면, 회국수 등이 있었는데 부재료와 가공형식에 따라 지방마다 특색있고 그 맛도 각이하였다.

국수물로는 닭고기, 소고기, 꿩고기 등을 삶은 물을 썼는데 이것을 육수라고 하였다.

국수꾸미는 랭면에는 김치, 생채를 기본으로 하여 편육, 닭알지진것을, 온면에는 볶은 나물, 고기, 닭알지진것을 놓았으며 회국수에는 살이 흰 명태 같은 물고기를 회쳐서 놓았다.

국수양념은 소금, 간장, 고추가루, 깨, 파 등을 위주로 하였다.

오늘 평양랭면은 조선국수의 대명사로, 우수하고 자랑높은 민족음식의 하나로 세상에 널리 알려져있다.

리 혜 원

다기능장식품-목수건

일반적으로 목수건은 봄가을철에 녀성들의 옷차림에서 흔히 리용되는 다기능장식품의 하나이다. 녀성들의 몸치레장식품에서 목걸이는 목부위만 장식할수 있지만 여러가지 색갈과 형태의 목수건들은 머리부위와 어깨부위 등을 장식할수도 있다.

목수건은 장식하는 부위와 리용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식효과가 각이하게 나타나게 된다. 례하면 풀색바탕에 붉은꽃무늬가 있는 신선한 목수건을 두르면 녀성들의 용모를 더 아름답게 장식하게 되며 옷색갈이 비록 자극적인 색갈이라고 하여도 고상하고 부드러운 색갈의 목수건을 두르면 목수건의 색갈과 옷색갈이 서로 조화가 이루어져 옷색갈의 자극감이 없어지거나 줄어들게 된다.

제낀깃양복안의 샤쯔우에 밝은색의 목수건을 받쳐 입으면 V형인 깃터침을 더욱 강조하게 되고 얼굴형이 아래로 길어져보이고 키도 좀 커보이게 된다.

만일 머리칼술이 적거나 머리부위에 그 어떤 부족점이 있는 경우 머리에 목수건을 보기 좋게 쓰면 자연스러우면서도 머리부위의 부족점을 가리울수 있게 된다. 그리고 길고 큰 양털이나 본견목수건을 어깨우에 걸치면 어깨부위를 감싸주어 보온효과를 얻을수 있을뿐아니라 옷차림전반이 풍부한 색조화를 이루게 된다.

양장에 긴목수건이나 사각목수건을 길게 접은 다음 량쪽끝부위에 매듭을 짓고 목에 걸쳐 앞으로 드리우게 하면 아래로 드리워진 목수건의 자연적인 직선이 수직장식선의 효과를 나타내면서 키를 더 커보이게 할수 있다.

삼각목수건인 경우에도 꽃댕기형식으로 곱게 매서 앞가슴에 드리우게 하면 가슴부위를 훌륭하게 장식할수 있게 된다.

본사기자

력사유적

검은모루유적

1966년부터 1968년사이에 상원군 흑우리(검은모루)에서는 구석기시대 전기의 동굴유적이 발견되였다.

검은모루란 흑우라는 한자말로 된 마을의 원래 이름이다.

유적에서는 주먹도끼모양석기, 제형석기, 뾰족끌석기, 쪼각석기 등이 발견되였다.

사람의 화석은 발굴되지 않았으나 석기유적들이 구석기시대 전반기에 해당되는것이므로 원인 즉 인류의 진화발전과정에서 첫 단계의 사람들이 리용했던것으로 확증되였다.

검은모루유적은 지금으로부터 100만년전의 아득한 시기의것이다.

석기유적과 함께 발굴된 29종의 동물화석가운데서 17종에 해당되는 화석은 이미 지나간 지질시대에 존재하다가 사멸된 종이다.

때문에 검은모루유적을 남긴 사람들은 인류발생의 첫 시기에 속하는 원인으로서 인류발생의 시작을 알리는 100만년전의 인간으로 되는것이다.

검은모루유적은 우리 나라에서 인류발생의 첫 시기부터 사람이 살아왔다는것을 실증하는 매우 귀중한 자료이며 구석기시대 전기문화 특히 원시인들의 생활을 연구하는데서 큰 의의를 가진다.

본사기자

뾰족끌석기

제형석기

원숭이뼈화석

단편소설

철마의 꿈 (6)

글 조정협, 그림 리성일

그는 어린 학생들의 친근한 형이고 오빠였으며 생활의 길안내자이기도 하였다. 방과후면 그는 자주 학생들을 데리고 철길이 굽어보이는 학교 뒤산에 올라 씨름경기도 조직하고 이야기도 들려주군 하였다.

《예전에 려행을 다니는덴 마차이상 없었지. 스티븐슨이란이가 만든 증기기관차가 철길을 달릴 때 사람들은 깜짝 놀라 괴물이니, 쇠말이니 하고 수군거렸단다. 철마란 소리지. 철마는 쇠로 만든 길만 있으면 칙칙폭폭하며 그 어디건 힘든줄 모르고 거침없이 달린단다.》

특히 깊은 인상을 남긴것은 소년화부로 기관차를 타고 다니던 때의 이야기였다.

식민지의 소년이 열풍속에 달아오른 얼굴을 들어 바라본 산천은 나라잃은 겨레의 피눈물에 젖은 삼천리였고 백성의 원성이 그칠줄 모르는 삼천리였다.

소년의 마음속에서는 꿈이 자라고있었다. 왜놈도 없고 착취도 압박도 없는 해방된 이 땅의 철길로 힘차게 달리는 행복의 철마에 대한 꿈이였다.

새별눈을 반짝이며 선생님의 꿈이야기에 온 정신이 팔려있던 아이들이 저저마다 소리쳤다.

《선생님, 우리도 그 철마를 타고 달려보고싶습니다.》

《정말 그런 날이 오게 될가요?》

《그래, 머지않아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과 너희들모두가 이 땅의 주인이 될 그런 세상이 오게 된단다. 그날이 오면 우리 함께 철마를 타고 이 나라 금수강산을 실컷 달려보자꾸나.》

이때 기적소리가 울려왔다. 아이들은 선생님의 손을 잡고 어느 한 둔덕우로 우르르 몰려갔다. 기차가 산굽이를 돌아서는 모양이 바라보였다. 기차는 흰 연기를 뿜어올리며 다가오더니 어느사이 그들의 시야를 벗어나 멀리로 사라져갔다.

기관차에서 울리는 기적소리가 온 산판에 메아리치고 있었다. 그 메아리를 들으며 아이들은 행복의 철마를 타고 해방된 이 땅의 방방곡곡을 달리게 될 자기들의 미래를 그려보고있었다.

그후 여름방학이 끝난 어느날이였다.

선생님은 한 녀학생이 부안군에 사는 이모네 집에 갔다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였다. 다른 아이들보다 나이가 두어살우인데다 용모도 환하고 남달리 총명하여 각별히 총애하던 처녀였다. 그가 바로 한수연이였다.

근심에 싸여 안절부절하던 선생님은 개학식을 마치자 곧 렬차에 몸을 실었다.

익산을 지나 김제에 도착한 선생님은 온몸을 땀으로 흠뻑 적시며 부안까지 수십리 먼길을 달려갔다.

한편 갑자기 앓아누운 이모의 시중을 들다 뒤늦게 길을 떠난 처녀도 김제쪽으로 부랴부랴 걸음을 다그치고있었다.

다행히도 두사람은 길가에서 서로 마주치게 되였다.

깜짝 놀란 처녀의 손에서 보짐이 툭렁 땅에 떨어졌다.

《선생님이?!》

《널 기다렸다. 헌데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 이렇게 내가 올수밖에.》

《그 먼길을 나때문에…》

미소가 어린 수연의 눈가에 이슬처럼 맑은 눈물이 찰랑이며 고여올랐다. 이날 함께 렬차에 오른 그들은 차창으로 흐르는 산천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처녀가 방학기간 이모의 집을 찾아 떠난것은 사실 기차를 타고 선생님이 들려주던 아름다운 산천을 자기 눈으로 보고싶어서였다. 처녀는 《호남금강》으로 불리우는 변산반도의 기묘한 바위와 산봉우리들이며 자기가 본 이 땅의 아름다움에 대해 신바람이 나서 이야기하였다.

《여기가 선생님이 말씀하시던 그 호남평야지요?》

처녀는 차창밖을 가리켜보였다. 끝없이 흐르는 무연한 벌판을 바라보는 그의 목소리는 환희에 젖어있었다.

《그래, 수십년이나 전국을 답사하고 〈대동여지도〉를 만들어낸 김정호가 여기를 지날 때면 백성의 목숨을 살려주는 땅이라며 무릎꿇고 절하군 했다더라.》

《아, 얼마나 아름다운 이 땅입니까. 그런데 지금은…》

뜨거운 한숨을 내쏟는 처녀를 이윽히 바라보던 선생님의 입에서 조용히 리상화의 시가 흘러나왔다.

선생님이 《지금은 남의 땅—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하고 첫련을 읊어나가자 《입술을 다문 하늘아 들아》 하는 처녀의 애절한 목소리가 뒤를 이었다. 《고맙게 잘 자란 보리밭아》, 《마른 논을 안고 도는 착한 도랑이》며 애틋한 심정이 담긴 시구들이 엇바뀌며 울리더니 두사람은 설음에 젖은 목소리로 《그러나 지금은—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였네》를 합창하였다.

《선생님, 선생님의 철마의 꿈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가요?》

밤깊어 고향마을에 도착한 그들은 달빛어린 동구길의 오리나무며 무성한 잎새치렁치렁 드리운 능수버들사이를 나란히 거닐었다. 사나이의 후더운 체취가 느껴지는 손을 잡고 교교한 달빛속을 거니는 처녀의 가슴속에서는 미묘한 감정이 움터나고있었다.

마을어귀의 내가에서 수연과 헤여질 때 선생님은 느닷없이 《만일 내가 어딘가 멀리로 떠나면 수연이도 나를 찾아와주겠어?》 하는것이였다.

처녀에게는 그 말이 례사롭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 말의 의미를 생각해보던 처녀에게는 지나간 날들에 보았던 사나이의 눈빛들이 되새겨졌다. 사춘기처녀의 마음을 당혹케 하던 류다른 눈빛이였다.

잠시 망설이던 수연은 얼결에 《선생님이 바라신다면…》 하고 대답하였다. 순간 얼굴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선생님은 왜 그렇게 물으셨을가? 그리고 나는 왜 그렇게 대답했을가.

후날에도 처녀는 자주 그 달밤을 떠올리군 하였다. 그러면 달빛아래 밝게 웃던 한 사나이의 모습이 눈앞에 어리여왔다.

그 모습은 다만 글을 가르치는 스승이 아니라 바라보면 마음이 든든해지고 의지하고싶어지는 억세고 정이 가는 청년의 모습이였다.

그후 꿈결에도 그리던 해방이 왔다.

북으로, 남으로 해방의 환희를 싣고 달리는 기차를 보며 마음을 진정하지 못하던 선생님은 어느날 학생들과 수학려행을 떠날것을 결심하였다. 서울, 경기도를 지나 평양, 신의주를 돌며 해방된 나라의 아름다운 산과 들, 강과 바다를 실컷 구경해보자는 랑만적인 구상이였다.

학생들은 너무 좋아 손뼉을 치며 깡충깡충 뛰였다. 학교 뒤산에서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린 가슴에 품고 자래워온 꿈이 금시 현실로 다가오는것 같았다. 하지만 그 꿈은 실현될수 없었다.

춘곤증을 극복하는 방법

봄철에는 춘곤증이 온다. 이때에는 잠을 충분히 잤는데도 졸음이 오고 식욕이 떨어지며 몸이 나른해진다.

일능률이 오르지 않고 어깨가 뻐근하며 심하면 감기에 걸린것처럼 몸이 편안치 않다.

흔히 저녁에 식사를 불규칙적으로 하거나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들속에서 춘곤증증세가 나타난다.

평소의 식사때 부족되기 쉬운 영양소를 보충하고 운동을 하는것은 이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된다.

일반적으로 고단백질은 졸음을 쫓고 당분은 졸음을 부르는 성질이 있다. 그러므로 낮에는 고기, 저녁에는 낟알, 과일을 먹는것이 좋으며 남새, 바다나물을 먹는것도 필요하다.

고려의학에서는 춘곤증을 봄철에 소화기능이 떨어지고 인체의 전체적인 기능이 약화되는것으로 설명한다.

봄철에 의사들이 보약을 권하는것도 이와 관련이 된다. 그러나 이것은 인체의 전체적인 기운을 돋구기 위한것으로 되지만 직접적인 춘곤증치료법으로는 될수 없다.

봄철에 운동을 시작하는 사람들중 많은 사람들이 춘곤증으로 부담을 받고있다. 그러므로 무리하지 않게 단계적으로 운동을 해야 이를 피할수 있다.

본사기자

유모아

《우리 집 문짝도 넘어지려 하네》

한 고을원이 남편의 얼굴에 상처를 낸 녀인을 관가에 불러다놓고 죄를 따지고 있었다.

《무릇 음기는 양기와 맞서서는 안되는 법이고 안해는 남편과 맞서서는 안되는 법이니라. 네 어찌 감히 이렇듯 풍속을 더럽힌단 말이냐?》

그러자 옆에 있던 그 녀자의 남편이 안해를 두둔하며 말했다.

《실은 제 안해가 저의 얼굴에 상처를 낸것이 아니라 공교롭게도 우리 집 문짝이 넘어지는 바람에 그렇게 되였나이다.》

이때 고을원의 안해가 관청문을 두드려대며 꽥꽥 소리질렀다.

《이 인정머리없는 사내, 박정한 사내. 그 사건이 도대체 도적사건이요 논밭송사요? 일개 아녀자의 일에 불과한걸 가지고 뭘 우쭐대며 판결해요?》

그러자 엄숙하게 앉아있던 고을원이 갑자기 목을 움츠리며 재빨리 말하였다.

《우리 집 문짝도 넘어지려 하네. 빨리 돌아가게.》

주 소 : 평 양 통 일 신 보 사 (해외동포여러분의 서면련락주소: 조선평양 국제우편국사서함 제150호) 전화: 책임주필실 366-0732, 편집국 366-0289 편 집 위 원 회